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ENIOR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YOUNG KYU SO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5, 2015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ENIOR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KYU SON

AUGUST 2015

지역교회에서의 노인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영락 교회 평생 대학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손 영 규

2015년 8월

Abstract

A Strategy for Revitalizing Senior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

Young Kyu Son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population is aging, and therefore Korean churches must prepare and develop ministries for the aged. In particular, many of the elderly in Korean society are facing serious problems such as poverty, illness, isolation, and role loss.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wofold: first, it argues that Korean churches must take care of the elderly both inside and outside churches. Second, it investigates such ministries and presents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s senior ministri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surveys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ed. In addition, it demonstrates how different academic areas such as education, theology, and psychology understand the aged. Chapter 3 deals with many serious issues relating to the elderly in today's Korean society, argues that local churches must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demonstrates principles for proper ministry for the elderly.

Chapter 4 introduces three local churches (the Dooorae Church, the Kimpo Joongang Church, and the Shinil Church) that provide examples of good ministries for the elderly. After describing the histories, backgrounds, and pastoral philosophies of those churches, the chapter examines their programs for the aged based on the principles described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5 describes the Younknak Presbyterian Church's two ministries for the aged: an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aged called "Lifetime Meeting," and a

welfare ministry. It then scrutinizes those ministries based on the principles discussed in chapter 3, indicat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ministr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 Jin Ki Hwang, Ph. D.

감사의 말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풀러 신학교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권문상 교수님, 풀러 신학교에 김태석 목사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고 도움을 주었던 아내 진경아 사모와 두 딸 희수와 은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육성이 권사와 장모님 유화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도록 자료를 주신 김포 중앙 교회 담임목사 정재화 목사님, 두레교회 송종인 목사님, 신일교회 김일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논문에 협조를 해 주신 영락교회 평생대학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한국 교회 노인 목회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5년 8월 손영규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개요	5
제 2 장 노인의 이해	7
제 1 절 일반적인 개념	7
1.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	7
2. 조작적 정의	10
가. 개인 자각에 의한 노인	10
나. 연령학적 노인의 개념	11
제 2 절 여러 분야에서 본 노인	15
1. 성경에 나타난 노인	15
가. 구약에 나타난 노인의 이해	16
나. 신약에 나타난 노인의 이해	19
2. 교육학에서 본 노인	21
3. 신학적으로 본 노인	22
4. 심리학적 이론으로 본 노인	25
제 3 장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31
제 1 절 노인 증가	31
제 2 절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34
1. 신체적 노화 현상	34
가. 소화기능	34
나. 골격	34
다. 혈액순환기능	35

라. 호흡 기능	35
2. 노인의 슬픔과 상실	36
가. 사회적 상실	37
나. 자기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37
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	37
바. 경제적 안정을 상실	38
사. 독립심 상실	39
아. 사회화적 상실	40
자. 관계의 상실	41
3. 성격 특성의 변화	42
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	42
나. 성 역할의 양성화 경향	43
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43
라. 변화에 대한 저항	44
마. 노인 자살	44
바. 현대 사회와 노인문제	46
 제 4 장 노인 목회 사례연구	48
제 1 절 두레교회 사례연구	48
1. 소개	48
가. 목적	48
나. 조직과 운영	49
2. 노인 프로그램	53
가. 진행시간표	49
나. 강의 일정	49
다. 특별활동	50
라. 조별활동	53
마. 늘 푸른대학 작품발표회	53

3. 평가	53
제 2 절 김포중앙교회 사례연구	55
1. 소개	59
가. 김포상록대학 설립 취지	55
나. 김포상록대학 설립목적	55
다. 구성비율	56
2. 노인 프로그램	58
가. 교육 프로그램	58
나. 일일 일정	58
다. 반 편성	60
라. 취미 반 교실	61
마. 운영 목표	61
3. 평가	62
제 3 절 신일교회 사례연구	63
1. 소개	63
가. 운영목표	63
나. 조직	62
2. 노인 프로그램	64
가. 학기일정	64
나. 일일 일정	65
다. 취미활동 반 편성	65
라. 1년 계획	65
3. 평가	66
제 5 장 영락교회 노인 목회 실태	69
제 1 절 평생대학	69
1. 평생 대학 설립배경과 교육목표	69
가. 설립배경	69

나. 설립취지와 목적	70
다. 표어와 및 교육 목표	70
라. 교육 내용과 개요	71
마. 교육기관	71
2. 평생대학 운영과 조직	71
가. 자격	71
나. 조직과 역할	72
다. 중점사항	72
라. 학사일정	72
마. 평생대학 성, 나이 비율	74
바. 일일 프로그램	74
사. 개강 및 종강행사	77
아. 오전예배	80
자. 심방	82
차. 상담	82
카. 각반 운영	83
3. 목회 보조 활동 및 행사	83
가. 소풍	83
나. 어버이날 및 스승의 행사	84
다. 취미 반 전시회	85
라. 무료진료 및 무료 급식	85
마. 교사수련회	85
바. 교사 교육	85
제 2 절 영락 노인 복지	86
1. 노인 복지 역사	86
가. 1941-1960대	86
나. 1970-1980대	87
다. 1990대	87

라. 2000대	88
2. 영락교회 노인 복지 소개	89
가. 영락경로원	89
나. 영락요양원	90
다. 양락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92
라. 영락소규모요양원	93
마.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95
3. 영락 노인 복지 평가	96
가. 긍정적 평가	96
나. 개선할 점	99
 제 6 장 결론	 101
 부록	 103
 참고 문헌	 107
 Vita	 110

표 목 차

<표 1> 두레교회 늘 푸른대학 진행 시간표	50
<표 2> 늘 푸른대학 강의 내용	51
<표 3> 늘 푸른대학 활동 반 구성	52
<표 4>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 남·녀 비율	56
<표 5> 상록대학 종교별 분류	57
<표 6> 상록대학 연령별 분류	57
<표 7> 상록대학 지역별 분류	58
<표 8> 상록대학 교육 프로그램	59
<표 9> 상록대학 일일 일정표	60
<표 10> 상록대학 반 편성	61
<표 11> 상록대학 활동반 편성	61
<표 12> 신일교회 노인대학 조직표	64
<표 13> 신일교회 노인대학 학기 일정표	64
<표 14> 신일교회 노인대학 일일 일정표	65
<표 15> 신일교회 취미 반 편성표	66
<표 16> 신일교회 1학기 계획표	67
<표 17> 영락교회 평생대학 1학기 운영 계획표(반기일정: 1학기 17주)	73
<표 18> 평생대학 성, 나이 비율	74
<표 19> 평생대학 일일 프로그램	75
<표 20> 평생 대학 취미 반 구성표	78
<표 21> 2015년 1학기 영락 평생대학 봄맞이 교사 교육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동기와 목적

우리 사회는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고령화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녀의 감소와 의료가 발전하여서 노인들의 병 치료와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 인구가 각 나라 인구 구성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를 넘어 서서 초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2000년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019년에 노인 인구비가 14퍼센트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¹⁾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 비율을 볼 때 한국은 세계 220개국 중 51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전망(2012년 개정판)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30년에는 한국의 노인이 비율은 세계 20위(23.4퍼센트) 2040년에는 7위(30.5퍼센트)로 꺾충 뛴다. 2050년에는 일본, 홍콩에 이어 3위(34.9퍼센트) 대국에 접어든다.²⁾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료대로 하면 세계 3위

1) 박석돈, 노인 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삼푸사, 2004), 7.

2)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5052800390>

가 곧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34.9 퍼센트라는 수치는 국민 세 명중의 하나가 노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의 대 폭발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3위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노인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라고 하면 4고, 즉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 상실을 거론한다. 우선 노령으로 인한 노동 현장에서의 이탈로 역할 상실로 이어지고 이로써 빈곤과 질병 및 고독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³⁾ 노인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빈곤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이 약해지고 병도 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병에 걸려있고 병원도 자주 가고 약도 많이 복용한다. 그래서 병치레를 하고 있는 일부 노인들은 육신의 역할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 죽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은 자녀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 외로움과도 싸움을 해야 한다. 우울증과도 싸움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연약한 이들이며 소외된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역할 상실은 노인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있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 곳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이전에 회사에서 중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갈 곳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자녀들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잘 만나주지 않는다. 노인들은 역할 상실과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같이 오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지금 중년에 있는 사람들도 꼭 겪게 될 문제이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찾아오는 것은 고독과 빈곤이다.

3)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1), 15.

노인의 약 87퍼센트가 치매, 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3.5퍼센트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특히 치매 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고독감으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⁴⁾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병과 싸움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 특히 치매 노인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인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치료를 받거나 해결 받은 단체들이 적은 것이 문제이다. 노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병을 앓게 되고 고독과 소외의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의 감소와 노인 병원비 지출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활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돌보아야 할 대상들이 늘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를 위해 평생을 일한 계층이다. 무시할 수도 없고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존재들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문제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현실이 앞에 있는데 교회도 사회도 정부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노인문제에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 하여 노인 부양을 하고 복지 재정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노인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으며, 사회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회가 사회의 고령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교회복지 실천은 청지기 삶과 영성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복지란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다.⁵⁾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노인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교회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교

4) 호태석, 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서울: 갈릴리, 1995), 25.

5) Ibid., 11.

회에 노인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세워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 과연 노인 성도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교회도 고민에 싸여 있다. 교회들도 노인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가 되었다. 교회들도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노인의 삶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어야 힘을 사회에 보태야 한다.

점점 더 노인 목회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회들은 노인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교회마다 노인대학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노인 성도들을 돕고 있다. 노인대학은 교육 수준과 형편이 다른 노인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들은 사회에서는 냉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 스스로도 마음속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노인복지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이란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의 삶, 의식주라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나 문제를 예방 또는 치료하고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노인 복지가 추구하는 세부 목표인 안정된 생활 유지,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사회 통합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⁶⁾

교회가 단지 노인들을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복지가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를 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노인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들에게 의식주 해결을 해 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노인들이 지금 제일 요구하는 것을 듣고 해결해 주는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 노인들의 삶의 안정을 생각을 해야 하고 노인들의 삶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룰 수 없이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 수 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6) 권중권,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4), 367.

자아를 이루고 좋은 삶을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인들과 젊은이들과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 이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안정된 생활 유지를 시킬 수 있는가? 자아실현의 욕구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가? 노인과 젊은이들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은 고민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영락교회의 노인 복지 현황과 교회 내 노인 대학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교회에 노인 복지와 목회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락교회는 창립 때부터 노인 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관심을 한국 교회에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영락교회는 노인 대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다. 노인 복지도 그 어떤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인대학과 복지에 대한 자료로 정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영락교회의 노인 목회나 복지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부족한 점도 있다. 그 점을 생각하며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본 연구를 통해 모색하려고 한다. 이 논문을 통해 영락교회 노인 목회나 복지를 한 번 검토하기를 원한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영락교회의 노인 목회와 복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한국 교회에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 목회와 복지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아울러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만들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개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두로 노인 사역에 관한 책과 자료를 통한 문헌조사와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영락교회 노인대학을 통한 현장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을 쓰는 연구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려고 한다.

제 2 장은 노인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적인 노인의 정의를 구체적

으로 조사한다. 노인에 대한 신학적 토론과 심리학적 논의를 통해 왜 노인 목회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들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층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 노인 상실의 문제, 그들이 가지는 성격 특성의 문제와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 속에서 느끼는 노인문제도 함께 본 장에서 다룰 것이다.

제 4 장은 노인 사역을 잘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하는 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두레교회, 김포중앙교회, 신일교회의 노인대학 사역과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내릴 것이다.

제 5 장은 영락교회 노인대학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락교회의 노인대학의 점검과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영락교회의 노인 복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락교회는 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 때부터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4개의 복지 시설 중에 노인에 관한 복지 분야를 선택하여 살펴 볼 것이다.

제 6 장은 본 논문의 결론을 담고 있는 장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노인 복지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언하고 본 논문을 맺을 것이다.

제 2 장

노인의 이해

본 장에서는 지역교회에서의 노인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볼 것이며, 이어 성경적, 교육학적, 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 1 절 일반적인 개념

본 절에서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이해로, 노인에 지칭하는 용어 및 조작성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1.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

노인이란 용어는 후기 성인 노인, 노령자, 장로, 연장자, 원로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국제 노년 학회에서는 노인이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 환경변화가 민감하지 못한 세대를 말한다. 또한 자아 통합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⁷⁾ 화합하기 힘든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노인이란 노화 즉 즉 늙어감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늙어간다는 말은 반드시 쇠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성숙을 향해 가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7) 호태석, 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45-46.

육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누구나 쇠퇴해 간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연륜과 함께 완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할 때 이러한 양 측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⁸⁾

노인들은 점점 성숙을 이루는 세대이다.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경륜은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연약함속에 인생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인생을 깊게 볼 수 있다. 완숙으로 가는 단계이다. 노인의 정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계층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노인에 대한 나약함이 점점 크게 다가온다. 신체적인 약함과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눈이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힘이 든다. 기억력이 쇠퇴하게 된다. 인지력도 약화되게 된다. 노인에 대한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면에서 노인을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노인이라는 말 그대로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늙어 간다는 것 즉, 노화의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쇠퇴해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⁹⁾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능이 쇠퇴 감을 뜻한다. 신체적 쇠퇴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된다.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리에는 힘이 빠지게 되고 허리는 굽게 되고 소화력은 떨어지게 된다. 피부는 주름이 생기게 된다. 신체의 나약함으로 인해 한탄하게 되고 젊은 때의 활기찬 생활을 생각하면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사라지게 된다. 위축이 되며 고립이 되게 된다. 혼자 있다는 고독감을 맛보게 된다. 점점 나약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슬픔 마음이 든다. 노인의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심리적 위축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효율적으로 일을 했던 때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더 이상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과 만나는 일도 적어지며, 결

8) 박석돈, 노인 복지론, 7.

9) 권중권, 노인복지론, 367.

국, 사람들이 잘 찾지 않게 되는 고립상태를 맞게 된다.

젊은 때의 건강은 점점 더 잃어가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 심리학 교수인 파프로스키(Alex Poplawsky)는 성인기와 노년기를 합쳐서 죽음 직전까지의 30년간 지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¹⁰⁾ 노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세대이며 육신적으로 쇠퇴해 가는 시기를 경험하는 세대이다. 노년은 죽음과 함께 하는 세대이다. 죽음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노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이다. 노인들은 주위의 있는 노인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된다.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떠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한 평생 함께 했던 배우자의 죽음은 그들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 준다. 평생 함께 지내며 서로를 돌보아 주었는데 이제 혼자 남게 된다는 심리적 고통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녀들도 다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아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혼자 감내하기가 너무 힘이 들게 된다.

1951년 제 2회 국제 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의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리하고 있다.¹¹⁾ 다시 말해서, 여러 부분에서 감퇴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사회현장에서는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술적 논의를 위해서는 부정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 말 중에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 노인들은 여러 부분에 감퇴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노인 층은 환경 변화에 둔감하게 세대이다. 변화를 싫어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노인들을 보게 된다.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을 한다.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더라도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리를 고집한다. 이해할 수

10) 노영섭,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서울: 한림출판사, 1997), 11.

11) 장세철 외, *노인복지* (서울: 교문사, 2006), 4.

12) 권중돈, *노인복지론*, 17.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노인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은 이사하기도 싫어한다. 이사를 했는데도 교구를 옮기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젊은 때부터 사귀었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노인들은 새로운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죽거나 없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한다. 점점 고립되고 관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다. 점점 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젊은 때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노인은 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계속해서 나약해지는 존재이다. 감퇴하는 현상을 인식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일반적 노인 정의를 해 보았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상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노인은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고 부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 노인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2. 조작적 정의

위에서의 노인에 관한 일반적 정의는 실제의 정책 수립과 집행, 사회 과학 연구, 실생활에서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 효용성이 낮으며 이에 다양한 연령으로 노인을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¹³⁾ 일반적 정의보다 더 깊이 노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면을 통합하여 보아야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인 정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노인들은 다른 경향을 띠 수도 있다. 다른 여러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 여러 기준을 통해 분류를 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가.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개인 자각에 의한 노인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노인이지만 정작 본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장년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인

13) 장세철 외, 노인복지, 5.

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¹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0세인데도 아직도 젊게 사는 노인이 있다. 60세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과 같은 생활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각 노성 측, 스스로 느끼는 노령화 정도에 대한 실제 조사에 따르면, 60-64세에 스스로 느끼는 노령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하지만 노인이라고 느끼는 나이는 차이가 난다. 어떤 노인들은 연령은 8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 인데 이미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는 정의이다.

노인들 중에 자주 사고가 난다. 실제 나이보다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훨씬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운동과 활동은 중요하다.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지금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지혜이다. 운동도 이전에 했던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고 힘들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등산도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서 코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이 등산을 하다가 많은 사고를 내는 것도 나이에 맞지 않는 코스를 정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나. 연령학적 노인의 개념

이것은 나이별에 따른 노인의 개념이다. 여러 종류의 분류가 있다. 이 분류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1) 역연령(Chronological Age)

역 연령이란 출생이후 달력상의 연령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인을 이러한 역 연령으로 분류하고 정의를 하고 있다.¹⁶⁾ 대개 달력상의 계산으로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뉴가르텐(Neugarten)은 초령 노인을

14) 권중돈, 노인복지론, 18.

15)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05), 19.

16) 장세철 외, 노인복지, 5.

55-64세로 활력 있고 유능한 그룹으로 은퇴하였거나 직장과 가정에 대한 시간적 투자를 줄인 노인들이고 고령노인은 65-77세 대부분의 퇴직자들에 해당되며 초고령 노인 75세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활동이 어렵다고 정의했다.¹⁷⁾ 초령노인은 지금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단지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는 나이에 노인들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초령노인을 뜻한다. 이들은 은퇴는 했지만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있다.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젊음을 추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나이다.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 시켰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중년층은 식당, 스포츠센터, 영화관 관람 시간대까지 젊은 층이 몰리는 시간대를 철저히 피해가며 소비를 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홈쇼핑을 끝낸 신 중년층은 오전 시간엔 운동을 한다. 신중년층이 수영장과 스포츠센터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은 오전 9시-낮 12시 사이였다. 스포츠와 관련한 카드 결제 금액의 30.9퍼센트가 이 시간대에 몰려 있다. 이 시간대 젊은이들은 대부분 학교와 직장에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 식사와 식후 '커피 타임'은 신 중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1시간가량 늦다. 학생·직장인의 '외식 업종' 피크 타임은 낮 12시대였다. 20-30대와 40-50대는 각각 14.6퍼센트와 14.8퍼센트가 이 시간대에 외식을 하고 카드를 긁었다. 반면 신 중년이 가장 많이 외식을 하는 시간은 오후 1시, 2시대(16.2퍼센트)였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다 은퇴한 전충석(62)씨는 "직장인들이 몰리는 12시 즈음에 식당 가 봐야 내 돈 쓰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좀 미안하기도 해서 웬만하면 이 시간대는 피하는 편"이라며 "나이가 들면 남는 게 시간인데 젊은 사람들 몰리는 시간에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¹⁸⁾

이러한 신 중년들의 소비패턴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들은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문화를 즐기며 여유를 즐기는 세대이다. 은퇴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젊은 때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세대이다. 지금은 이들의 소비를 잡기 위해 기업들은 노력하는 점은 이전 세대에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다.

17) 이호선, 노인상담, 20.

1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3/2015021300359.html.

앳츨리(Atchley)는 역 연령을 기준으로 연소노인을 60세-74세, 중고령 노인을 75-84세, 그리고 고령노인을 8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¹⁹⁾ 그러나 많은 노년학자들은 역 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와 범주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그가 주장했던 때가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의료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노인이라는 하는 나이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은퇴 연령이나 연금 수혜로 적극적인 연령 기준은 점차 65-67세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²⁰⁾ 과학의 발달로 이전에 노인의 연령은 달라지고 있다. 지금의 70대는 이전에 50대와 비교해도 건강이나 육체적 현상들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점점 더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2)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

생물학적 연령 구분 또한 육체에 따라 노인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분도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육체 연령에 따라 나누는 구분이다. 여기에서는 40대를 초로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70대를 초로로 보아야 할 만큼 70대 노인들도 건강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80이 넘는 노인인데도 활동하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6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활동하기를 힘들어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퇴화 과정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적으로 유기체적 파괴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합당하다. 점점 가속화되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점점 더 쇠퇴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인들에게 이 생각이 절망을 줄 수 있다. 결국 죽는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금의 노인들의 활동은 예고된 쇠퇴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쇠퇴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게 되고 더 많은 자신의 건강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

19) 전천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교육목회*, 1998년 2월호, 30.

20) 장세철 외, *노인복지*, 6.

(3)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은 적어도 60여 년 동안 겪는 개인적 경험과 사건,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²¹⁾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 기능이나 정신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나이로서 성격과 심리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연령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심리적 나이는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는 개인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공자는 심리적 정신 연령에 칭을 지어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했다.²²⁾ 심리적으로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나이를 심리적으로 파악하므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사회적 연령(Social Age)

사회적 존재로서 노인의 사회적 특성의 핵심은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직장 상실은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정의 권위도 약화된다.²³⁾ 가정에서 가장으로 지내다가 더 이상은 돌볼 사람이 없어진다. 회사에서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젊은 때에 가졌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된다. 사회적으로 물러나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내 주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가정의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이 되어 가장으로서 권위는 사라진 사회이다. 역할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능력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위치가 된다. 노인은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을 받게 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의 규범과 기대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입장이나 지위 또는 역할 등에 결부되어 있는 나이로서 예를 들면, 승진의 나이, 은퇴의 연령, 결혼 적령기, 군 입대 혹은 투표권 행사할 나이 등이 이에 속한다.²⁴⁾ 노인들은 은퇴의 연령이 해당한다. 사회적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21) 박차성 외, *한국 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3), 27.

22) 홍숙자, *노년학 개론*, 16.

23) 박차성외, *한국 노인 복지론*, 35.

24) 홍숙자, *노년학 개론*, 16.

(5) 기능적 연령(Function Age)

전술적으로 형태적 노화 현상은 각 장기의 기능저하로 연결된다. 근육이 위축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더욱이 폐나 심장 기능까지 떨어지면 숨이 차고 힘이 약해져 오래 걷기가 어려워진다. 연령 증가와 더불어 대개 직선적으로 기능이 저하된다.²⁵⁾ 모든 기관이 기능이 떨어져 소화력도 떨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자주 넘어져서 다치기도 한다. 기억력은 감소하게 되고 눈의 기능도 저하된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작아지게 된다. 운전도 신체적인 장애로 할 수 없는 나이가 된다. 노인은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은 산업사회에서 노인으로 문제 삼는 연령이다. 노화로 인한 다른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인이 특수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는 특히나 노인의 역할이 거의 없다. 점점 더 발전 하게 되는 사회적 방향을 따라잡아서 기능적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노인들은 사회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경기에 나갈 선수의 적정 연령,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교수의 유동직 퇴직 연령 등이 이에 속한다.²⁶⁾

제 2 절 노인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

본 절에서는 성경적, 신학적 측면에서 노인을 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 내지는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에 나타난 노인

성경은 노년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레 19:32; 룿 4:15; 잠 23:22; 딤후 5:1-2) 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²⁷⁾ 레위기는 쉰 머리 앞에서 일어나며 노인을 공경

25) 노영섭,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15.

26) 홍숙자, *노년학 개론*, 16.

하라고 하고 있다.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일어나라고 하는 뜻은 높게 여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자가 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유대민족에게 노인 공경에 대한 사상은 성경 속에 존재하였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인 비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 공경 사상이 명령으로 지켜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다. 남편 말론을 죽였지만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다고 말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 한다.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한 이유 중에 나오미를 공경했고 불쌍한 여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복된 여인이 되었다. 그 안에 노인 공경의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멸시하는 풍조는 성경에 나온 공경사상에게 공격을 받고 변화를 가져야 한다. 잠언의 말씀은 아버지를 청종하라고 하고 있다. 네 늙은 어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다. 노인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의 말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다. 노인의 말을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의 말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노인 존중 사상을 깊게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가. 구약에 나타난 노인의 이해

구약에서 노인을 ‘수염이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켄(Zaken)은 이를 노인뿐만 아니라 장로로도 번역하고 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데, 노인을 가리켜 쓰이는 것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로 쓰인다(창 48:10; 삼하 19:32; 욥 12:20; 시 72:18). 노인이나 장로는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재판관의 역할도 하였다.²⁷⁾ 유대 민족은 지도자를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의지해서 사리 분별하는데 노인들의 의견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인을 장로로 번역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장로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함을 말한다. 장로는 존귀한 자이고 공

27)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6), 153.

28) 한정진, “성경이 말하는 노인,” *교회와 교육*, 2004년 여름호, 16-17.

공동체의 어른이다. 장로들은 공동체 안에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가 장로이고, 노인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70인의 백성들의 장로들(민 11:6)과 장로들과 재판장들은(신 21:2)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⁹⁾ 장로들은 나이가 많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젊은이들을 세워서 좌충우돌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들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하였다.

모세는 80세 부름을 입었고 아론도 83세의 부름을 입었다.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많은 경험이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을 선택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함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노인들이 지혜의 상징임을 말하고 있다.³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에 부모나 웃어른에 대한 명령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 함이다. '복을 주겠다.'고 하였다. 복을 받고 장수하려고 효도하라고 하고 있다. 공동체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다. 특별히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인간으로 지켜야 할 첫째의 계명으로 정해 주셨다. 부모와 어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고 인간으로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들의 행실을 나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한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 전쟁이 있을 때 비참한 죽음을 가지게 된다. 아버지의 말을 경시하는 자의 결국은 좋지 못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반면, 요셉은 아버지를 애급으로 모시고 끝까지 잘 모시는 장면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나온 명령을 순종하시는 자들을 좋아하신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29)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154.

30) 호태석·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319.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노인은 할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전수를 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야곱의 기도로 12 자녀들이 복을 전수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모든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의 죽음 직전에 기도를 받고 가장의 영적 권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다. 노인을 통해 아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장면을 통하여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낡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한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한다. 이 말씀들은 노인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2절은 “너는 섰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였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면류관임으로 존경받아야 존재’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노인들에 대한 존중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다.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성경 속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멸시받고 천대 받고 있다. 결국 노인들의 소외됨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이런 나쁜 경향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며, 효와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 미덕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노인 공경의 명령을 잘 알고 순종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건전해 질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노인은 그 임종에 즈음하여 그 후손들에게 노래(신 32장)나 유언(왕상2:1 이하; 창49:1-28; 삼하 23:1-7)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과거에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노래를 통해 자신이 평생을 하나님께 함께 했던 그 신앙적 간증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노래를 전수하고 있다. 이 노래를 잘 알기를 원했다. 모세는 노인이 되어

사역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임종 직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 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 노년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노년은 분명히 인생의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¹⁾ 노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노년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 속에서 노인에 대한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현대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노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노인들은 복을 주시는 대상이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노년까지 품어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 주시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노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교회는 노인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인목회의 근거를 삼아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 돌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회들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자칫 젊은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하게 되는 데 교회에서 더 이상 봉사할 수 없고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인들은 간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젊은이들로 통해 돌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사랑의 봉사로 심령이 건강해 질 것이다. 노인들은 돌봄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 신약에 나타난 노인의 이해

신약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31)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55.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의 나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노인이라고 여겨진다. 그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지만 주님을 맞아 예언을 했던 노인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의 사역을 중요성 있게 다루고 있다.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사역을 복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시므온이 그의 삶의 정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노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고 했고 그의 나이가 팔십사 세가 되었다고 말한다. 안나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성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 노인이었다. 84세이면 지금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노인으로 생각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녀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님을 알아 볼 수 있었으니 그녀는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지혜로움과 분별력과 영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존중이 신약에도 나오고 있다. 에베소서 6장 2절-3절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다. 신약에서도 주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다. 구약에 언급한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노인을 부모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진실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약의 성도들도 필히 알아야 하는 명령임을 뜻하는 것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똑같이 공경할 때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한다. 노인에 대한 공경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은 신약에서도 나타난다.

신약에서는 노년의 기준 나이를 찾기 어려우나 구약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라는 질문에서 당시 50세가 노년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³²⁾ 그 당

32)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47.

시에는 노인의 개념을 지금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도 일찍 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정도에 노인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의 성경적 내용의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인으로서의 전환은 빠르면 50세에서 시작하여 늦어도 60세부터는 노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살펴보았다. 성경에서는 노인들은 존귀한 자이고 존경받아야 하며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존경하므로 보살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꼭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알게 한다.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꼭 노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육학에서 본 노인

교육학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노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교육학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노화가 일어난다. 성경적인 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누구나가 다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며, 늙고 죽고 인생에 다칠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경은 죽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문으로 보고 있다. 잘 준비한 만큼 건강한 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관계의 단절도 일어나는 것을 알고 관계 개선을 위해 교육해야 한다. 배우자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너무 많은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언젠가는 혼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친구들도 하나둘 내 곁을 떠날 것이고 언젠가는 나 혼자 홀로 남아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식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 봉사함으로 보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특별히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영락교회는 은퇴 한 후에는 봉사하는 곳이 있다. 사회 봉사부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은퇴해도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노인 성도들은 자신도 힘이 들지만 어려운 일을 도울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 평생대학에 찬양대에 봉사하는 이들도 있다. 찬양은 계속할 수 있어서 찬양으로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고 있다. 찬양을 하면서 행복해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인생 노년의 의미를 바로 찾고 누리고 있다고 본다.

영락교회 곳곳에서 노인들이 휴지를 줍는 봉사를 하며, 식당에서 배식을 돕고 있다. 요즘은 노인이라고 해도 건강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함으로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교육으로 알려 준다. 또한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는 호스피스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 죽음 앞에 노인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을 좋아한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노인들도 그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언젠가 자신들도 그 자리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또한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인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끝임 없이 찾아오는 어두운 마음을 봉사함으로 밝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은 노인의 삶을 새롭게 나아가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평생 교육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 요즘은 교회에서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3. 신학적으로 본 노인

인간에게는 분명히 두 번의 전환기가 있다. 즉, 소년에서 성년으로, 성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계기이다. 첫째 것은 성숙에의 전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새로운 개화이다.

노인은 내면에 깊은 성숙을 이룬 시기이다.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은 젊은 계층이 가지지 못한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로 노인들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폴 틸리히는 사람을 실존으로 이해한

다. 실존이란 본질에서부터 떠나 있는 현실적 존재이므로 본질로부터의 옮겨짐이 실존의 특성을 이룬다. 이 특성이 다름 아닌 소외이다.³³⁾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 그들을 사회에서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는 단지 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약한 자들을 소외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실존은 본질에서 떠난 상태이다. 서로를 소외 시키므로 고통을 겪고 있다. 본질은 서로 사랑함이며, 서로 위로함이며, 격려함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봄으로 나아가야 본질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인 노인을 돌볼 때 우리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소외된 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소외됨으로 죽어가고 있다. 특별히 노인들은 고독함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로가 힘이 되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연약한 속에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노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루터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대상으로 고려되었을 때 이웃이 대상이 되는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선행하지 않으면 진실한 이웃사랑은 가능하지 않음을 루터는 분명히 했다. 모든 인간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루터의 입장은 십계명의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도 분명하게 탐지된다.³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이웃은 소외된 자들 특별히 노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고귀한 사랑을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야 한다. 이웃 사랑은 곧 노인 사랑이다. 노인들은 가장 소외된 자이가 가까이 있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33) 권용근, “틸리히의 불안 이해와 교육적 적응,” *신학과 목회* (1995), 207.

34) 김선영, *믿음과 사랑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63.

또한 종교 개혁가 칼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칼뱅의 자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칼뱅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자녀가 죽었다고 말을 했을 때 칼뱅은 조국 프랑스를 떠나 타향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피난민을 도왔고 사회복지 기금을 마련하고 사회 복지 시설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칼뱅은 구속 기관인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는 보호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³⁵⁾

칼뱅은 제네바에서 사회 복지 시설을 장려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신학이 그를 행동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가 생각한 사상이 약자들을 위한 배려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고아원과 고부들을 돌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였다. 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주장하였다. 사회에서 냉대 받고 혼자 살 수 없는 이들에게 향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 결국 그의 신학은 약한 이들을 즉, 노인의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칼뱅은 인간론을 논할 때에 제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이라는 점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본 인간의 모습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 달리 칼뱅은 인간의 피조 성을 강조한다. 인간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위를 바라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과 기타 외모에 있어서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본연의 자리는 영혼 내지는 정신이 있다고 한다. ³⁶⁾

칼뱅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피조 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뜻이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누구나가 존귀한 자이며 노인이라고 제외 될 수 없음을 말하였다. 어떤 인간이라도 동물처럼 대우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

35) 최윤배 외, *종교 개혁과 칼뱅*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198.

3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370.

한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우 받을 이유가 없다. 노인에 대한 존엄을 뜻한다. 루터도 칼뱅도 다 노인에 대한 귀함을 말하고 있다. 약한 자로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말한다. 신학적인 바탕에 있어서 노인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야 함을 뜻한다. 노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냉대와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노인 돌봄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도 노인 돌봄은 든든한 바탕을 두고 있다. 노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며 약한 자임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4. 심리학적 이론으로 본 노인

심리학적으로 본 노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많은 아쉬움과 반성이 있는 시기이다. 지금 와서 자신이 살아 온 삶을 후회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후회와 아쉬움 속에 좌절과 한숨이 깊어지며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바라던 대로 잘 살았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후회와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노인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더 잘 살아가야 함을 알려 주어야 한다. 특별히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제를 주어야 한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신체적인 쇠퇴현상도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기 비하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쇠퇴할 수 있음을 알고 승복해야 한다. 만약,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도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실 안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을 부정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더 이

상 치료는 있을 수 없다. 현실을 잘 받아드려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이힐스트(Havihurst, 1972)의 발달 과업 이론에서 생의 주기를 6 단계로 구분하며 마지막 노령기의 발달과업에는 약화되는 신체적 힘과 건강에 따른 적응, 퇴직과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 배우자 죽음에 대한 적응, 동년배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 융통성 있는 사회적 역할 수행,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환경의 조성 등이 있다.³⁷⁾

경제적 감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이힐스트(Havihurst)도 역시 현실을 받아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은 노인들이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으며 함께 관계를 나누므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노인이라고 관계를 다 단절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가 나눔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영락교인은 특별히 실향민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함께 고난을 겪는 공동체이고 한번 교회를 다니면 잘 옮기지 않는 특징이다. 심지어는 어릴 때 같이 자란 이들도 있다. 함께 주일학교에서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노년을 같이 보내고 영락동산으로 함께 간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공동체성이 강하다. 영락평생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노인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소풍을 하고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이라고 한다. 유대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평생대학생들은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다. 강한 유대관계로 인해 서로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노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생활의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들은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는 곳이 좋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기가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노인도 있는데,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노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좋다. 가구도 쓰기 편하게 배치하며, 허리를 위해 침대 사용이 좋고 욕실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노인들은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자주 당하기 때문에 욕실에 미끄

3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7.

럼 방지하는 타일을 쓰는 것도 지혜이다.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 지금 퇴직을 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섭섭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취미 개발도 하는 것도 좋다.

노인들이 여러 제약들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활동과 행동에 한계가 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젊을 때에 있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이전에 했던 심한 운동이나 활동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에 맞는 걸기나 활동을 해야 한다. 나이에 맞는 삶에 적응을 해야 한다. 과신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생활 반경을 재정의 해야 한다. 젊은 때는 해외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갔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집과 근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노년에 삶속에서 계속 지내는 공간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좋다. 이전에 두었던 목표를 다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젊은 때에 목표를 변경을 해야 하며 노인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영락교회에서는 노인 성도들에게 성경을 쓰게 한다.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부모님이 써 주신 성경을 받아 본 자녀들은 감동하게 되고 믿음의 본을 잘 전수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루에 조금씩 운동하는 것도 좋은 목표이다.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걷기 같은 운동은 노인들도 할 수 있다. 새로운 취미 만들기도 좋은 목표이다. 영락교회 노인 성도들은 기타를 치는 것을 배우거나 붓글씨 배우기 같은 고상한 취미들을 목표로 설정하기도 한다.

김중서은 한국인의 생애 주기를 7단계로 나누고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세대차와 사회변화를 이해하기,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배우기, 최신 동향알기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찾기,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찾기,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취미를 계속 살리기,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배우자 사망 후 생활에 적응하기, 죽음에 대한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친교 유지하기,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어른 구실하기,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건강에 적응하기,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알맞은 섭생하기, 질병이나 쇠약에 대한 바른 처방을 하고 있다.³⁸⁾

이 글에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해 주고 있다. 세대차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노인부터 노력해야 심리적으로 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차단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노인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세대 차를 인정하고 젊은이들을 인정하려 해야 한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데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젊은 층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젊은 층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한결 부드러운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다. 배타적인 사고를 보다 젊은 층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최신 동향알기는 신문을 통하여서나 지역 사회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 학습을 계속 해야 한다. 노인들도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해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이 되기 위해 자기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찾아가는 노력도 해야 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운동도 끊임없이 하여 자기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노년의 삶속에서 활기를 줄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활력 있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언제가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야 하며 죽음의 대한 공부도 하고 죽음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한다. 죽음은 하나의 문이고

3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7.

천국으로 향하는 단계라는 것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어떤 마지막으로 남겨질 지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 하지 않게 되면 상속 문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 평소에 떠날 준비와 재산의 정리도 해야 한다. 유산도 어떻게 남겨 놓을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책임 있는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도 좋다.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생활 근로로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하는 노인은 집에만 있는 노인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여 질 것이다. 집안일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를 쓴다던지, 자서전을 쓴다던지 계속해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과제를 해 나가는 것도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병이나 쇠약에 대한 바른 처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속 먹는 약을 구하는 법을 알아 두는 것도 지혜이다. 수입 감소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 젊은 때 해 왔던 삶이 계속 유지 되지 않는다. 수입 감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입에 맞는 규모로 살아가야 하며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한다. 수입을 맞게 살아가는 훈련도 해야 한다.

가족 관계를 잘 가지는 것도 노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서로 가끔씩이라도 만나는 관계가 좋다.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건전하다 주일날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은 좋다. 교회에서 일 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들 안부를 묻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노인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이다. 생일이나 가족들의 기념일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영락교회는 온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가족들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노인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유익을 준다. 같이 살지는 못해도 가족들의 깊은 관심과 교제가 있다면 훨씬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 손자들과 손녀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다. 자신의 자손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의젓하고 건강한 손자들, 손녀들을 대하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게 된다. 후손들에게 작은 용돈을 주는 것도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찾게 된다. 노인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느끼게 해 주는 일은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들은 노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배움과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갈 수 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많은 병들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 개념의 노인들은 늙어감에 따라 모든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사람들이다. 연령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으로 나약한 시기이다. 성경적으로 노인들은 존귀한 대상이며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공경하며 잘 돌보아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 살펴 본 결과, 노인들은 돌봄은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으로 가기 전에 노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다.

제 3 장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본 장에서는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의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현재 노인들이 겪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을 본 장을 통하여 찾고자 한다.

제 1 절 노인 증가

인구 학자 피터 심마니는 2000년 6억 6백만 명이던 노인의 숫자가 2050년에는 19억 7천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연령 그룹은 같은 시기 동안 불과 50퍼센트 증가하는 예상되는 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³⁹⁾ 다른 연령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더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가 세배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 계층을 줄어들이고 있는데 반해, 노인 계층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 그렇게 바람직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령인구 증가에는 예외가 아니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젊은 층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의학 및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장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만 가고 있다.

인구의 역삼각형은 많은 문제를 우리 사회에 안겨 줄 것이다. 생산적인 인구가

39) Frank Schirr Macher, *고령사회 2018년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나무 생각, 2005), 56.

줄어든다는 것은 곧 사회 문제를 안겨 준다는 말이다. 이 현상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만큼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며, 복지에 대한 지출이 가중될 것이다. 고용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연금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산업 등 경제적인 활동 가능한 인구의 감소는 경제력을 쇠퇴하게 할 것이다. 소비의 주체들이 감소하므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2020년께 '서방경제가 고령화 충격으로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며 '그 강도는 리히터 지진계 9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⁴⁰⁾ 지진 9도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위기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자연 재앙과 같은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에게 진도 9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난이 물려온다는 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이미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적응하면서 많은 난국을 헤쳐 나갔다. 지난 많은 세기 동안 인류는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 나왔고 지금도 적응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문제를 생각하고 준비하면 능히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잘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로 잘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갈지 고민할 때이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퍼센트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14퍼센트 이상은 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고령화된 사회는 북유럽과 일본,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선진 사회가 주를 이룬다. 21세기는 고령화 세기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인구 추이는 끝없이 그리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다.⁴¹⁾

지금까지는 노인 문제가 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하

40) Macher, *고령사회 2018년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19.

41) Ibid., 57.

나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20년 사이에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선진국의 30퍼센트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87퍼센트에 이른다. 2025년에 되면 선진국 인구는 2억 4천만 명인 데 비해, 개발 도상국가들의 인구수는 약 5억 5,600만에 이르러 2.3배의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국제연합의 인구추계자료(1998)에 따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5.3퍼센트에서 2000년에는 6.9퍼센트, 그리고 2020년에는 9.3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²⁾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1960년대 65세 이상 노인수가 73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9퍼센트였는데 1990년에는 22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5.1퍼센트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3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퍼센트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753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4.3퍼센트가 넘어 고령 사회가 되고 2030년에 가서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인 넘어 전체 인구의 19.3퍼센트의 초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⁴³⁾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찰하겠다.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2030년에는 4분이 1일 19.3퍼센트가 노인 인구가 된다. 고령사회로 진입은 불가피하다. 노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긴 안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이전에 없었던 노인 인구의 증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42) 권중돈, 노인복지론, 22.

43)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26.

제 2 절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그럼,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절에서는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를 신체적 노화 와 노인의 슬픔과 상실, 그리고 성격 특성의 변화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신체적 노화 현상

먼저, 노인들에게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육체적인 고통들이 모든 기관 별로 나타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소화기능

노인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을 힘들어하게 된다.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으며 소화효소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 먹어도 소화가 힘들다고 한다. 먹는 것이 부실하게 되면 전체적인 건강도 악화되게 된다. 많이 먹지 못하게 되고 노화로 인해 먹는 약이 늘어나게 되어 점점 위에는 좋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인들에게는 위를 포함한 상부 위장 질환이 많다고 한다.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잘 먹는다는 것이다. 단순한 것이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그 만큼 따르게 된다. 소화 기관의 약화는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

나. 골격

노인이 되면 자세가 나빠지고 키가 줄어들고 새우등이 시작된다. 뼈가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인들이 이처럼 골절되기 쉽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된다. 노인들은 균형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뇌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신경들이 점차적으로 둔하게 된다.⁴⁴⁾ 항상 노인들은 넘어지는 것에 조심해야 하며, 조금만 충격으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허리가 먼저 좋지 않게 된다. 의자에 앉기도 힘이 들게 되며 무릎과 관절도

44) 임창복, *노인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2004), 16.

좋지 못하다. 걷기가 힘이 들고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새우등이 되어 자체가 불균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게 된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된다. 그 만큼 골격의 약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 혈액순환기능

일반적으로 34세 평균 심박출량은 $91 \pm 7.1\text{ml}$ 인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매년 1퍼센트 감소하여 82세에 이르면 $60.1 \pm 5.1\text{ml}$ 가 된다. 연령이 증가하면 혈관의 벽에 지방질과 노폐물이 침착하고 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압이 높아지는데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고혈압, 동맥경화증, 및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⁴⁵⁾

심박출량은 1/3이 감소하게 된다. 노인들이 지방질과 노폐물이 축적되기 때문에 피의 흐름이 악화되게 된다. 매년 1퍼센트로 감소를 하게 된다. 노인들은 고혈압에 자주 걸리게 되어 약을 먹게 되어 있다.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함으로 많은 병이 찾아온다. 결국, 약의 증가는 그들의 소화 기관도 좋지 않게 한다.

라. 호흡 기능

일반적으로 20대 후반 건강인의 전폐용량은 평균 7ℓ 폐활량은 5.2ℓ 잔기량은 1.8ℓ를 유지하는 데, 70세에 이르게 되면 1회 흡입하는 호흡의 양이 6ℓ로 줄어들고 잔기량은 2-2.5ℓ로 늘어난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폐에 들어와서 순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호흡의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보여 준다.⁴⁶⁾ 호흡량도 감소를 하게 된다. 폐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도 증가를 하게 된다. 노인들은 숨이 차다는 말을 많이 한다. 노인들의 폐의 기능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수치를 통해 노인들의 호흡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한다.

마. 다른 기능

피부와 근육은 주름이 많아지며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부서지기 쉽다. 노인들은 탄백질이 쇠약한 결과로서 피부가 거칠고 주름지며 건조하다. 근육은 힘이 약해지는

45) 고수현 외, 새로운 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6), 48.

46) Ibid., 49.

데 그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힘이 상실되면서 중심 신경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극이 빠르지 못하다. 심장 혈관 조직은 피의 흐름이 적기 때문에 혈관이 적어지거나 협착 되는 경우가 있고 뇌 나아가서 점점 굳어지고 탄력이 적어지게 된다.⁴⁷⁾

인간은 원초적으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한다. 이 모든 감각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사회적 적응이 노인들에게 필요하다. 청력은 20대부터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청력의 점차적인 저하를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⁴⁸⁾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 다 쇠약해 지는 것이다.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특별히 청각의 손실은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자괴감에 빠지게 되며,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노인들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절망하게 된다. 이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자신들이 이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은 20대부터 저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노인이 되면 활동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2. 노인의 슬픔과 상실

여기에서는 노인들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노인들은 신체적인 영역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있다. 슬픔과 상실이라고 하는 병이 노인들에게 찾아온다.

47) 임창복, *노인기독교 교육*, 16-18.

48) Ibid., 50.

가. 사회적 상실

노인들의 청각의 상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노인 주변의 세상과의 접촉을 어렵게 한다. 사람들과의 대화 단절과 라디오, 텔레비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글로 써서 교제하는 것도 싫어한다. 노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손상된 시력 때문에 여행이 어렵고 밖에 나가는 일이 어렵다. 신체적인 장애들로 인하여 사랑하고 받고 관계를 하지 못한다.⁴⁹⁾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문제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점점 더 자신 안에 가두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글씨로 쓰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꺼리게 된다.

나. 자기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치매, 뇌손상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것을 대한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기에 대한 수치감과 두려움이 증가하면 죽기를 원하기도 한다.⁵⁰⁾ 노인들은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급격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기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치매의 병도 두려워한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그들을 괴롭힌다.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게 되며 이제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한다. 혹시나 정신을 잃어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노인들이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이다.

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

나이를 먹게 되면 죽음이 다가 온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 노인들은 자기들의 배우자나 친구, 자녀들을 잃을 때 슬픔을 갖게 된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워한다.⁵¹⁾ 노인들은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

49) 임창복, *노인기독교 교육*, 21-22.

50) 고수현외, *새로운 복지론*, 86.

야간다. 현실적으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배우자가 떠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슬픔에 잠기게 된다. 실제적으로 배우자가 곁을 떠나면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같이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노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있다. 자식을 떠남은 노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된다. 자신이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과 의욕을 빼앗기게 된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되고 살아서 무엇 하는지 회의감을 갖게 된다.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게 된다. 결국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된다. 주변의 물건을 하나 둘 정리하고 소중한 사진들도 정리를 한다.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정리를 다 하고 죽음을 맞겠다는 노인들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 노인들의 사고들은 점점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주고 심리적으로 위축을 가지게 한다.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

바. 경제적 안정을 상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는 데 큰 힘을 갖고 있다. 은퇴 하면서 수입이 전보다 절반에서 2/3가량 줄어든다.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때 노인들은 돈이 나타났던 힘과 존경을 잃게 된다. 노인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남자로서 자아 존중감을 잃게 된다. 노인들이 손자 손녀에게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사 줄 때 이런 행동 뒤에 그들의 자긍심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¹⁾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노인들의 마음이다. 줄 수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며 이전에 화려하게 살았을 때를 생각하게 되면 더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기 존중감과 연결이 되게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며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노인 빈곤이라는 말은 노인들의 삶이 고되고 힘이 든다는 말을 나타

51) 입창복, *노인기독교 교육*, 22.

52) Ibid., 24.

내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는 최근 “세계 각국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져 회원국들 내부에서 부의 불평등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발표에 의하면, OECD 회원국들의 상위 10퍼센트 부유층이 하위 10퍼센트 빈곤층보다 소득이 약 9.6배 더 많아 지난 2000년의 9.1배 보다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상위 10퍼센트 부자의 소득이 하위 10퍼센트 보다 10.1배로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퍼센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⁵³⁾

우리나라는 OECD 회원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이다. 놀랄만한 충격을 주는 통계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젊은 때는 자녀들을 위해 다 헌신을 하게 되고 자녀의 결혼까지 가중되면서 저축을 하거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노인들의 고통은 심해지게 된다. 거의 반 정도는 노후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노년의 삶을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노인들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전에 활동하던 시기에 마음껏 쓰던 경제 활동에 위축은 자아 존중감을 잃게 한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감도 상실하게 된다. 자신감의 위축은 노인들의 삶도 피폐하게 한다. 노인들에게 경제적 상실로 인해 우울감과 고독감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노인 자살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

사. 독립심 상실

독립심과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다. 하지만 노인들은 독립심 상실이 일어나게 된다. 세월이 지날수록 노인들은 자율성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기력과 정력을 잃게 되게 되면 의존성이 급증한다.⁵⁴⁾ 혼자 식사하는 것도 힘이 들고 집안일도 보기가 힘이 든다. 심지어는 화장

5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94970>

실 가는 것도 힘이 들게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같이 의존성이 가지게 되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노인들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한다. 스스로가 한탄하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혼자 할 수 없게 된다. 집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나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집에 머물게 된다. 관계가 끊어지면서 더욱 더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삶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된다.

아. 사회화적 상실

노인들에게 사회화적인 문제도 있다.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노인의 사회화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 입장에서 사회는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고,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의 사회화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는다. 둘째로 성인기 이후의 사회화는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면에서 강하므로 개인의 특별한 노력 없이 새로운 지식과 새 기술을 배우기 힘들어 하는 노년기까지의 사회화가 어려워진다. 셋째로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알아서 준비하는 예기적 사회화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노령기로의 전환이 어렵다.⁵⁵⁾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식은 노인들에게 점점 더 고립되게 한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노인들은 소외 되므로 마치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새 기술을 익히는데 둔감한 노인들은 점점 젊은 세대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다. 새로운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단지 현대의 기술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점점 도태되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빠른 현대화에 있어서 늦추어지는 노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 없는 세대가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

54) 임창복, *노인기독교 교육*, 24.

55) 임양택, *생명 공동체 교육과 노인의 희망* (서울: 쿤란출판사, 1998), 45.

대다수의 인간들은 노인을 현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이며, 무능력한 존재, 역할 없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로 평가해 왔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으로부터 평가 절하되는 대상이 되어왔다.⁵⁶⁾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노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쓰다 남은 기계의 부속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 그들이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필요한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로 구분하기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관계의 상실

현대 사회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놓여 있다. 가족의 유대관계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다.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노인부부나 아니면 노인들은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에 직면에 있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다. 고독감은 노인들에게 떨려야 떨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고 오고 있다. 지금 많은 가정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노년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고독감과 싸워야 한다. 몸도 아픈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자녀들이 노인들을 끝까지 돌보아 한다는 의식도 사라지고 있다.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 등의 전통적인 효 사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는 2월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및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세~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족·성·결혼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4퍼센트는 시설만 좋다면 부모를 양로원에 모셔도 좋다고 생각했다. 2001년보다 해당 문항 동의율이 10.8퍼센트p 증가했다. 또한, 부모는 가능한 장남이 모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같은 기간 38.6퍼센트에서 27.6퍼센트로 줄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41.4퍼센트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⁵⁷⁾

양로원에 모셔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부모를 모셔야

56) 이철우,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58.

57)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600&allD=20120706173053597&search_keyword=

하는 당위성도 떨어져가고 있다. 점점 이 의식은 높아질 것이다. 노년에 혼자 사는 이들이 점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3. 성격 특성의 변화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상실의 문제를 스스로 느끼기 되며, 실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이 노인들을 찾아온다. 여기서는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성격 특성의 변화의 문제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노년기 전반에 우울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개인적 가족관계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노인의 우울증을 증가시킨다. 질병과 배우자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늘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배우자의 죽음과 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게 된다. 이는 불면증, 체중감소, 강박관념, 증오심 등의 구체적인 우울 증상을 동반한 노인 우울증으로 전진되는 경향이 있다.⁵⁸⁾ 우울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증오심으로 강박관념으로 괴로워한다. 노인 자살에도 직접적 영향이 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심리적 우울증으로 고통가운데 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통으로 마음에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은 불면증을 호소한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이들도 있다. 한 곳에 집착하는 경우도 보인다. 자신이 놓아둔 자리에 물건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노인들이 있다. 무언가에 심하게 집착을 하는 것이다. 증오심이 가득차기도 하며 용서를 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증오심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손해를 끼친 이들을 계속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몸은 작아지고 병이 많아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향을 띠게 되므로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 여러 원인들로 우울증은 증가하여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58) 박석돈, 노인 복지론, 7.

나. 성 역할의 양성화 경향

노년기 속성 중에서 특히 노년기 양성화 경향은 남녀 모두 상대방의 성향과 특질을 취하기 시작함으로 남녀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억제되어 표현되지 않았던 행동특성들을 표현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지각에 변화가 생긴다.⁵⁹⁾ 여성 노인들은 강한 남성의 특징을 지니게 되고,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스러움을 가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성 노인들은 자기 주장성이 강하며 공격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고, 남성들은 수동적이며 섬세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성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여자 노인들은 적극적이 되고 사회 친구도 잘 사귀면서 남자 노인들보다 잘 지내게 되기도 한다. 성 역할의 변화이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남성들은 오히려 소극적이 되고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현상으로 홀로 지내거나 밖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여성들은 반대로 밖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노인이 될수록 주위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 세월과 세상이 변했을지라도 자신과 주변이 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지체들이다.⁶⁰⁾ 자신이 사랑하는 개나 사진 골동품을 잃었을 때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충격을 겪게 된다. 자신이 애착을 가진 것이 없어지면 견딜 수 없다. 남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지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도 노인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이다. 노인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보다 그들을 생각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들을 잘 바뀌지 않는다. 그들을 변화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다른 세대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현명한 사고이다.

59) 박석돈, 노년 복지론, 68.

60) Ibid., 69.

라. 변화에 대한 저항

노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의 변화는 노년기의 심리적 불안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되고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조심성이 증가한다.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 고수하는 보수성이다.⁶¹⁾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노인들에게 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저항하게 된다. 옛 것을 고집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것이 극단적인 나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도 주춤하는 것은 노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노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때 필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수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 살아왔던 곳에서 달라지는 것을 싫어한다. 경직성이 노인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안정되기를 좋아하고 지금처럼 살아온 것을 좋아한다. 조심성이 있어서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쟁의 위협이나 전염병 바이러스의 위협성을 알게 되면 더 강한 저항을 하는 경향은 노인들의 변화의 거부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사하는 것도 싫어한다. 새 사람을 사귀는 것도 싫어한다. 이 경향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마. 노인 자살

75-92세 사이의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 중 71.4퍼센트가 기분 장애를 경험했으며, 65-74세 사이에서는 63.9퍼센트가 기분 장애를 경험했다.⁶²⁾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 수치는 대부분으로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병중에 우울증은 위험하고 심각한 병이다. 왜냐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제때 치료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노인에게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알코올 중독도 자살 원인 중에 하나이다. 노인의 16퍼센트가 알코올 남용이라고 한다. 알코올 중독이 자살 생각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다.⁶³⁾ 자살과 알코올 중독은 상관관계가 많이 있다. 알코올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61) 박석돈, 노인 복지론, 69.

62) 육성필 외, 노인자살과 위기개입 (서울: 학지사, 2011), 19.

노인들에게 있다. 특히, 16퍼센트나 되는 수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15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1천6명 가운데 348명(34.6퍼센트)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통계분석(2013년) 결과에서도 인천지역 노인자살은 전체 자살 사망자 868명 중 242명(27.9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인천지역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퍼센트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자살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고, 전국평균(26.8퍼센트)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이 69퍼센트로 많았고, 연령대는 70대가 55.8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또 무직(가사 포함)일 경우가 88.4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의 자살시도율은 무려 8배나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도 인천지역 60-80대 자살률(인구 10만 명 자살자 수)은 지난 2000년 25.7-51.0이었던 것이 2010년 52.7-123.3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⁶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평균 26.8퍼센트이다. 네 명 중에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인천지역에서는 34.6퍼센트로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사회에서 밀려나고 우울증 증가가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자살을 생각하고 70대가 가장 많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은 8배나 높다는 수치는 고독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결국, 노인 문제들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점점 더 노인 자살은 늘어갈 것이고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 더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들의 자살률은 높고 여러 가지 노인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 특별히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자신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인들의 자살은 삶에서 연관된 것이 많다. 자신의 삶에 대한 무력감이나 열등감이나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63) 육성필 외, *노인자살과 위기개입*, 19.

64)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953>

바. 현대 사회와 노인문제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 속에 노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해결 방안을 모색 해 보겠다.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이 홀대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로 젊은 세대를 원하고 있다. 노인들은 당연히 늘어갈 것이지만 노인들에 대한 사회 기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빠른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데 노인들은 기술이나 능력에 있어서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노인들을 나이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기여 한 것으로 존중하고 존경을 했지만 현대사회는 권위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결국, 노인들은 현대 사회에서 물러 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전에 생활 방식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인식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고령화는 생명의 연장을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준비 되지 못한 사회에서 밀려 있는 세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의 역할이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기술을 습득하기가 힘이 든다. 너무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기 때문에 그 속도를 쫓아 갈 수 없다. 인터넷, 핸드폰, SNS등 너무 빨리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노인들은 빠져 있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 건강의 약화로 병원에 가는 일도 잦게 된다. 산업사회에서 지탱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에 젊은 때에 영화를 다시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결국, 노인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노인 증가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노인들은 노화로 소화기능, 골격, 혈액순환, 호흡기능, 모든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를 느끼며 자기 통제력과 배우자의 죽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죽음으로 상실

감이 크다. 경제적인 상실이 일어나며 독립심도 상실이 된다. 관계의 어려움도 가지게 된다. 성격적으로도 우울증과 성 역할의 양성화로 혼란을 가지게 된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 그런 결과로 노인 자살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들은 전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돕고 있는지를 교회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노인 목회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노인 목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세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들 교회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목회와 잘 적용하며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노인자원 활용을 통한 목회방안”을 세우는데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앞으로 교회가 노인 목회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두레교회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두레교회의 노인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1. 소개

가. 목적

늘 푸른대학은 두레교회 시니어사역 중의 하나로서, 두레교회의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역량들을 배양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공동체로서 만 65세 이상(2015년 현재 1950년생 이상)된 두레교회 성도들로 구성된다. 두레교회는 65세로 시니어로 정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보통 교회들은 70세로 나이를 정하게 된다. 두레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아서 나이를 다른 교회에 다르게 정하고 있다.

나. 조직과 운영

늘 푸른대학 운영위원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교육, 행정 및 관리는 운영위원장 주관 아래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모여 늘푸른대학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 노인 프로그램

가. 진행시간표

<표 1>은 늘 푸른대학의 진행 시간표를 표로 만든 것인데 늘 푸른대학은 특강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고 있다. 오전에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찬양과 기도를 광고를 한다. 특강 강사에 따라 변화된다. 체조를 하고 식사와 특별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친다. 특강이 없을 때는 자체적인 수업이 1, 2교시로 이루어진다. 다른 프로그램은 비슷하다.

나. 강의 일정

두레 교회 늘 푸른대학의 강의는 매우 실제적이다. 행복 찾기와 노후 설계 6대 영역도 다루고 디스크 같은 노인병을 따른다. 합창과 노인으로써 어떻게 매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강의가 있다. 치아 관리하는 법도 강의 내용에 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 준다. 두레 교회에 늘 푸른대학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 2>는 늘 푸른대학의 강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두레 교회의 특강은 매우 다양하다.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노인들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의 개념을 잡고 행복을 추구하는 노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노후 설계에 노무, 주거, 일자리, 대인관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접근을 하고 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노인들의 필요를 찾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디스크와 같은 병,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많이 필요한 문제이다. 죽음에 대한 강의도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표 1> 진행 시간표 65)

특강 있을 시		
시간	프로그램	담당자
9:30-10:00	준비모임	운영위, 도우미
10:00-10:25	찬양	담당자
	기도	조장
	광고	담당자
10:25-12:00	특강	특강 강사
12:00-12:20	체조	담당자
12:20-13:20	식사 & 휴식	다같이
13:20-14:20	특별활동	각반별로
14:20-14:30	정리&정돈	(조별활동)
특강 없을 시		
시간	프로그램	담당자
9:30-10:00	준비모임	운영위, 도우미
10:00-10:25	찬양	담당자
	기도	조장
	광고	담당자
10:25-11:15	1교시	전체
11:15-11:30	휴식	다같이
11:30-12:20	2교시	반별
12:20-13:20	식사 & 휴식	다같이
13:20-14:20	특별활동	각반별로
14:20-14:30	정리 & 정돈	(조별활동)

이 모임은 예배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노인들의 필요를 알고 배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다.

합리적인 소비라는 주제는 노인들의 소비를 조사하고 적당하고 절제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특강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점점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교회에서 좋은 강사들을 불러 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노인들이 직접 들을 수 없는 강의를 교회를 통해서 듣고 있다.

나. 특별활동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 반마다 1명의 도우미들을 둔다. 교사 한 명이 다 관리 할

65) 두레교회 늘 푸른대학 상반기 운영 매뉴얼 자료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우미를 두어 노인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앞에서 교사는 진행을 하고 뒤에서 도우미 교사가 활동은 돕는다. 노인들이 잘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표 2> 강의 내용 66)

순서	일자	강좌명	주요 내용	강사
1강	3/10	행복 찾기	- 행복의 정의, 의미, 구성요소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방법	담당자
2강	3/17	노후설계 6대 영역 노후설계 트렌드가 바뀐다	재무, 건강, 주거, 일자리,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	담당자
3강	3/31	디스크와 이별하기	- 디스크는 수술이나 질병이 아니다 원리를 알면 디스크 예방, 치유	담당자
4강	4/7	행복한 인생 후반전	- 몸짱, 맘짱, 행짱이 되자	담당자
5강	4/21	합창/ 노래와 건강	[합창지휘자, 경일유류주식회사 대표]	담당자
6강	5/12	끌리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 너와 나의 차이점 뇌크레이션	담당자
7강	5/26	웰다잉	- 행복한 하늘소풍 준비하기	담당자
8강	6/2	합리적인 소비 유언 상속	재무관리의 올바른 이해 행복한 상속과 증여	담당자
9강	6/16	실버 치아 관리		담당자
10강	6/23	숨어있는 웃음 찾기	웃음이 주는 효과, 웃음건강법 웃음으로 스트레스 탈출하기	담당자

2015년 1학기에는 총 8개 반을 편성하되, 각 반에 8-10명을 이루게 한다. 한 반

66) Ibid.

에 8-9명은 인원은 적당하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반에 속하여 있으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레교회는 적당한 인원으로 소규모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특별활동 편성은 개강 일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인원이 많은 반들은 숫자를 조절하게 된다. 인기 있는 반은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노인들이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반이 잘 진행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별활동 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책자 같은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한다. 자신의 돈이 들어가야 아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강의 개설은 교회에서 해 주지만 다른 비용은 노인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 기구와 사진 등은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 스스로가 부담하게 한다.

늘푸른대학의 활동 반은 작지만 알차게 움직이고 있다. 종목은 율동, 운동, 건강에 대한 반들이 개설 되어 있다. <표 3>은 활동반 구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활동반 구성 67)

	활동반	담당강사	활동장소
1	천조반	담당자	하늘터
2	탁구	담당자	3층 로비
3	바둑	담당자	두레홀 내실
4	스포츠라인댄스	담당자	햇살터
5	시니어봉사단	담당자	두레홀
6	하모니카 예술단	담당자	새 가족부실
7	실버합창단	담당자	제2 찬양대실
8	실버헬스	담당자	다솜터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레 교회는 특별활동이라고 명칭하고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철저하게 강사들은 교인들이 감당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을 연구하여 반을 개설한다. 원칙은 수강신청자가 5명 미만 시에 따라 강의가 통합될 수도 있다. 반은 인원수에 따라 운영될 수도 있고 폐강 될 수도 있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원하면

67) Ibid.

개설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강 될 수도 있다.

라. 조별활동

조별활동은 두레교회 소속 시니어들의 영적친목과 관계성숙을 도모한다. 각 조원은 1년마다 정하되, 교회기준(구역/셀 편성)으로 정한다. 구역 별로 정하는 것이 특이하다. 구역 중심이 된다고 하면 서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장은 각 조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되,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은 조장에서 제외한다. 만남의 장으로 마련해 준다. 집으로 가기 전에 조별 모임을 한 후에 떠나도록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외로움은 고통인데 서로들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조별활동은 오후 특별활동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모인다. 조장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같이 한다. 늘푸른대학 방학 중에는 한 달에 1회 이상 모여서 식사 및 친교를 나누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모여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도록 한다. 노인들은 방학 기간에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모임이 잘 된다. 방학에까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교회의 정책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마. 늘 푸른대학 작품발표회

늘 푸른대학 작품발표회의 시기는 12월 첫째 주에 2학기 종강과 함께 이루어진다. 주일 오후에 발표회를 하며 온 교인들이 다 노인들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내용은 1년 동안 함께 한 예술부문과 교양부문에 관한 전시 및 발표회이다. 노인들의 작품을 보면서 온 교회가 같이 축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다. 평일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므로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평가

두레 교회의 늘 푸른대학은 작지만 알찬 모임이다. 늘 푸른대학은 노인들의 필요를 잘 아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들의 필요를 잘 알고 채우는 모임이다. 특강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있다.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특강 내용에 들어 있고 디스크에 대한 강의, 치아에 대한 강의는 노인들에

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소비에 대한 부분의 강의도 노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올바른 소비를 알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는 낭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지출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강의도 필요하다. 어떻게 죽음을 맞는 것이 좋은 죽음일까를 생각하게 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부분도 좋은 내용이다.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불행하다.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의도 필요하다. 노인들은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기 비하를 가지기 쉽다. 하지만 노인들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강의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두레교회 늘 푸른대학은 다른 교회에서와 같이 예배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교육 중심의 모임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 노인들을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한 반을 8-9명 구성하는 것은 좋은 반 구성이 된다. 도우미가 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교회에서 봉사자가 없어서 반 구성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도우미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두레 교회는 젊은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반 구성이 적당해야 서로 대화하기가 쉽고 교제 나누기도 쉽다. 너무 많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교사가 관심가지고 돕기가 쉽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반 구성의 인원이 적당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두레 교회는 반 운영을 잘 운영하고 있다.

특별 활동 반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도 반도 있다. 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고 함께 즐기고 있다. 봉사반도 있다. 노인이라고 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봉사를 행하는 반도 있다. 봉사하면서 보람과 의미도 가질 수 있다. 합창단도 있어서 노래로 함께 같이 하면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노래를 통해서 마음도 밝아질 수 있다. 노래를 같이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조별활동은 교구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방학 때 모든 모임은 쉬지만 노인 조별 활동은 이루어진다. 노인들은 모임을 계속 가지기를 원한다. 셀별로 같이 교제를 하니 지역별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용의하다. 서로 잘 알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서로 벽이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다. 신앙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함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두레 교회도 지역 주민과 믿지 않은 노인들의 참여는 부족하다. 교인들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다보니 전도의 장으로 쓰이기는 쉽지 않다. 세상 밖에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다. 좀 더 지역노인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제 2 절 김포중앙교회 사례연구

김포 중앙교회는 김포시 북면동에 위치에 있으며 현재 정재화 목사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1. 소개

가. 김포상록대학 설립 취지

김포중앙교회에서는 노년층의 문제가 대두되는 때에 노인교육을 위한 상록대학을 설립하였다. 상록대학은 고독과 소외로 인하여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노인들에게 기쁨의 장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상록대학을 통하여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를 만들어 주고, 단조로운 삶에는 배움의 즐거움 주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공동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사는 노력하고 있다. 모쪼록 모든 학우들이 상록대학을 통해서 더 행복한 노년의 시절을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나. 김포상록대학 설립목적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의 목적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록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

는 것이다. 가장 큰 목표는 복음 전도에 있다. 상록대학을 통하여 믿지 않는 노인들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적극적인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목적이 있다.

봉사의 목적은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도와주어 건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기회를 제공한다. 상록대학은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평생교육의 시대적 사명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 노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적 과제를 수행함으로 사회교육 발전에 이바지 한다.

역할회복의 목적은 노년기에 성실한 역할과 지도력을 회복하고 사회적응을 활발하게 하며 보람 있는 생활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의 목적은 노인들로 하여금 무병장수 하도록 도와주며 각종 취미 오락 여행 대화 등을 통하여 즐겁고 희망찬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다. 구성비율

(1) 남녀 비율

<표 4>는 김포상록대학의 남녀 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남녀 비율 68)

여자	남자	제적
350명	50명	400명
88퍼센트	12.5퍼센트	100퍼센트

<표 4>에서와 같이, 총 4000명 중에 여자가 350명으로 거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남자 노인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어느 교회나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2) 종교별 분류

68)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 인원 구성 자료

<표 5>는 상록대학 구성원을 종교별로 분류한 표이다. <표 5>에서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은 불신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33퍼센트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불신자들이다. 김포중앙교회는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상록대학은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상록대학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로 쓰임 받는 데 상록대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 상록대학 종교별 분류 69)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기타)
132명	66명	87명	115
33퍼센트	16.5퍼센트	22퍼센트	29퍼센트

(3) 연령별 분류

<표 6>은 상록대학의 구성원을 연령별로 분류한 표이다.

<표 6> 상록대학 연령별 분류 70)

65-70세	70-80세	80-90세	90세 이상
55명	299명	44명	2명
14퍼센트	75퍼센트	11퍼센트	0.5퍼센트

<표 6>에서와 같이, 연령별 분류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주류가 70-8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주로 노인이라고 하면 70-80까지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75퍼센트 정도가 상록대학에 참여를 하고 있다. 65-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집에는 손자, 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연령이므로 상록대학에 많이 참여할 수 없다.

69) Ibid.

70) Ibid.

(4) 지역별 분류

<표 7>은 구성원을 지역별로 나눈 것을 표로 만들었다.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포중앙교회 상록 대학은 김포에 전 지역에 퍼져 있다. 인천과 기타 지역도 있다. 그 만큼 소문이 나 있다. 대곶과 양촌은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이다.

<표 7> 상록대학 지역별 분류 71)

갑정동	사우동	북면동	장기·운양	대곶·양촌	풍무·고촌	인천·기타
47명	39명	38명	50명	93명	58명	75명
11.7퍼센트	9.8퍼센트	9.5퍼센트	12.5퍼센트	23.3퍼센트	14.5퍼센트	19퍼센트

2. 노인 프로그램

가. 교육 프로그램

<표 8>은 김포상록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이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은 월별로 주제를 나누어 행사를 하고 있다. 3월에는 만남의 주제를 가지고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4월에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영화 상영과 특강이 있다. 5월에는 자연 라는 주제로 정하고 소풍을 가게 된다. 6월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가요제가 있다. 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요제를 함으로 교회에 벽을 낮게 하는 데 역할을 한다. 9월에는 따뜻함이라는 주제로 문화 공연을 한다. 10월은 설렘 주제로 수학여행을 진행한다. 11월은 포근함 주제로 졸업식이 있다. 달마다 주제를 정하여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나. 일일 일정

<표 9>는 일일 일정표를 표로 만든 것인데 이 <표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은 교사 경건회와 교사 모임 몸 풀기 체조를 진행한다. 특별 강의를 진행하고 그 후에 분반 담화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에 취미 반 활동을 하고 식사 후 교사 모인다.

71) Ibid.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도 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다. 몸 건강을 위해 하는 시간이고 몸 풀기를 하고 특강에 들어간다. 믿지 않는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강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진다. 노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기독교의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분단 활동을 통해서 서로들 더 알아가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믿지 않는 노인들과 믿는 노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도록 권면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상록대학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다.

<표 8> 상록대학 교육 프로그램 72)

월	일	주제	특별 행사		비고
3	12	만 남	가입학 및 등록		사진, 등본 설문
	19		입학식, 개강		입학식 및 교사소개
	26		오리엔테이션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강사소개
4	2	즐거움	애국조회		
	9		생일파티		
	16		영화상영		
	23		특강	외부강사	
	30		생일파티		장수사진 촬영
5	7	자 연	봄소풍		
	14		교사의 날		
	21		특강	외부강사	
	28		생일파티		
6	4	아름다움	애국조회		가요제 신청
	11		상록 가요제		
	18		특강	외부강사	
	25		1학기 종강/생일파티		

72) 김포중앙교회 상록대학 운영 자료

<표 9> 상록대학 일일 일정표 73)

시간	교육 내용	장소	비고
9:00-9:30	교사 경건회	교무실	담당자
09:30-10:00	수업점검 및 학우안내	현관 강당 기타	
10:00-10:15	몸 풀기 체조	강당	담 당 자
10:15-10:55	특별 강사	"	특강
10:55-11:05	노래 부르기	"	강사
11:05-11:10	광고	"	담 당 자
11:10-11:20	화장실 및 각반이동	"	
11:20-11:50	분반 담화활동	각 반 교실	각 담임 및 부담임
11:50-12:40	취미반 활동	"	각 반 강 사
12:20-13:30	점심식사	식당	
13:30-14:30	교사 평가회	교 무 실	담 당 자

다. 반 편성

김포상록대학의 반 편성을 표에 담고 있는 <표 10>에서와 같이, 반은 9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반들은 교회 각 장소에 진행을 한다. 반의 이름은 꽃 이름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반 편성은 꽃 이름으로 되어 있다. 노인들은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접근하도록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어색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오도록 하고 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발표회를 통해 자녀들과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도록

73) Ibid.

하고 있다.

<표 10> 상록대학 반 편성표 74)

반명	매화반	국화반	난초반	장미반	백합반	개나리	금잔화	봉숭아	진달래	채송화
장소	본당 (피아노)	본당 (드림)	본당 (뒤쪽)	무지개 동산	찬양 단실	물댄 동산	무지개 동산	만들 기방	새가 족실	가요방

라. 취미 반 교실

반 편성을 표로 담고 있는 <표 11>에서와 같이 취미 반은 11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취미에 따라 각기 원하는 반에 속하여 활동을 한다. 종류로는 실버난타, 가요 반, 서예 반, 한글 반등이 있다. 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요 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1> 상록대학 활동반 편성 75)

반명	실버난타	만나반	웰빙댄스	장구반	가요반	합창반	서예반	한글반	만들기반	미술반	건강체조
장소	비전센터 1층	중보기도실	소년부 교실	비전센터 2층	찬양대실	본당	새가족실	찬양단실	지하작은방	물댄동산	유년부실

마. 운영 목표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마음의 질투는 몸까지 병들게 한다. 현실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충분히 귀하고 좋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한다. 젊은 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지금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한다. 질투하면서 생을 허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움켜쥐고 있지 말라 너무 인색한 노년은 외로울 뿐, 돈을 잘 사용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자신이 가지 것을 나눔을 통해 기쁨을 가지라고 노인들에게 강조한다.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한다.

74) Ibid.

75) Ibid.

인생하지 말 것을 말하며 좋은 것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을 특강이나 모임 때마다 강조를 한다.

항상 밝은 생각을 하라 노년기의 불안과 초조는 건강을 위협한다. 마음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고 교육하고 있다. 불안과 초조를 버리고 지금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며, 의존적 사람이 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해야 한다고 한다.

감정에 솔직해라 젊은 척, 아는 척, 부유한 척 하는 삼척동자는 왕따를 당한다. 있는 대로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일임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

신앙을 가져라 신앙은 인생의 석양을 한결 무난하게 만든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강조한다.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알려 준다. 인생은 마지막은 믿음을 가진 자에 되어야 한다고 한다. 아무 일이나 참견하지 말라 참견보다 후원과 격려에 치중하라.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라 나만큼 외로운 사람, 나만큼 노력한 사람 등의 표현을 삼가라고 한다. 모두가 힘든 일이 있고 혼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자신의 나약함을 노출하는 행위이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라 이제는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나 체념할 것은 빨리 체념하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인하라고 한다.

3. 평가

김포 중앙 교회 상록대학은 믿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임이다. 70퍼센트가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전도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 거부감 없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믿지 않은 노인들이 찾아와서 조금씩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인으로 변화되게 된다. 처음에는 교회라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점점 더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게 된다. 가족들도 전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는 가족을 초청하는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인이 될 수 있다. 믿는 노인들과 믿지 않는 노인들이 반별 활동도 같이 하고 자

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특강 강사를 통해 은연중에 복음을 접하는 일들도 있다. 70퍼센트의 불신자들이 꾸준히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귀할 수밖에 없다.

상록대학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모임이다. 김포 지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심지어는 거리가 먼 인천 지역에도 19퍼센트의 노인이 나오고 있다. 요즘 교회가 세상 밖과 단절한다고 비난을 듣는 시대에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지역 노인들을 초청하고 김포지역에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 상록대학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노인들의 좋은 평가는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상록대학은 기독교의 색채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 이름부터 꽃의 이름을 두고 있다. 꽃의 이름은 거부감이 없다. 프로그램도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요제도 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믿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전도에 핵심이 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교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제 3 절 신일교회 사례연구

신일교회는 서울 중구 청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로 배요한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1. 소개

가. 운영목표

본교는 “노인을 공경하라”(레 19:32)는 성경말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유대를 돈독히 하며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며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존경 받는 어르신이 되도록 한다.

나. 조직

노인대학의 조직을 표로 담고 있는 <표 12>에서와 같이, 교장은 담임목사로 되어 있다. 조직에 있어 위원장도 있고 담당 교역자, 학감, 총무, 부장으로 두고 있다.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기구를 담임목사 아래 두고 있다.

<표 12> 신일교회 노인대학 조직표 76)

구분	담당 업무	담당자
교장	본교의 대표	담임목사
운영위원장	본교 운영 전반을 관장	담당자
담당교역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예배 인도	담당자
학감	학사운영 전반	담당자
총무	재정운영 총괄	담당자
교무부장	교무업무 총괄, 교사활동 지원	담당자
서무부장	예산집행 요구 전반, 제반 문서 관리	담당자
찬양팀	찬양대, 예배 전 찬양	담당자
건강체조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담당자
방송	방송실 운영	담당자
반주	찬양 반주	담당자
급식	주방팀과의 협의를 통한 영양식 제공	담당자

2. 프로그램

가. 학기일정

<표 13>은 학기 일정표를 표로 만든 것인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예서와 같이 1학기는 15주로 되어 있다. 2학기는 조금 짧은 14주이다. 중간에 방학이 있다. 신일교회 노인대학도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76) 신일교회 노인대학 학사 운영 자료

<표 13> 신일교회 노인대학 학기 일정표 77)

학기	개강 / 종강	수업일수	비고
1학기	3. 12 (수) - 6. 25 (수)	15일	
2학기	9. 3 (수) - 12. 10 (수)	14일	

나. 일일 일정

일일 일정을 보여 주는 <표 14>에서와 같이, 신일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특강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의 시간과 특강의 시간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예배와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14> 신일교회 노인대학 일일 일정표 78)

시간	내용
10:00-10:10	교사 경건회 및 준비 회의
10:10-10:20	예배 전 찬양
10:20-10:45	예배
10:45-11:00	건강 체조
11:00-12:00	전체 활동(특강)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취미 활동

다. 취미활동 반 편성

<표 15>은 취미활동 반 편성을 표로 담고 있는데 이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반은 많이 편성을 되어 있지 않지만 노래와 아트공예와 운동에 취미 활동 반이 있다. 취미 반은 회비가 따로 있고 따로 비용이 있으면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다. 신일교회 노인대학은 취미 반은 크지는 않으며 교회에 맞는 노인대학과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다. 아트 공예는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반이다.

77) Ibid.

78) Ibid.

라. 1년 계획

1년 계획을 표로 만든 <표 16>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 특강에서는 건강에 대한 특강을 많이 하고 있다. 신뢰감이 있게 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있다. 영화감상도 있고 노인들을 향한 축제도 하고 있다. 소풍의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같이 함께 야외로 나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무척이나 기다리는 시간이다. 선교사 현장 보고의 시간도 있어서 노년에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강조하는 시간도 갖는다.

<표 15> 신일교회 취미반 편성표 79)

종별	교 사	강사	내용	장소
보드게임	담당자	담당자	까름	선큰가든
건전 노래교실	담당자	담당자	건전노래 부르기	소예배실(10만)
찬양교실	담당자	담당자	은혜로운 찬양	찬양대실
하모니카(5만)	담당자	담당자	하모니카 연주	3층 세 가족실
통기타(5만)	담당자	담당자	기타연주	세미나실
아트공예	담당자	담당자	수공예품 만들기	1층 교구실
배드민턴	담당자	자치회	배드민턴 운동	
게이트볼	모임 후 과외활동			게이트볼 코트

수경 재배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지게 한다. 축제를 통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도록 한다. 노인들에게 고독감과 외로움을 함께 같이 하면서 이기도록 한다. 취미 활동 반을 통해서 취미로 다시 하나로 교제하도록 한다. 신일 교회는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맞는 작지만 알찬 노인의 모임이 되게 하고 있다.

79) Ibid.

3. 평가

신일교회 노인 대학은 지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의 아파트 단지에 노인 성도들이 많이 있는 점을 생각하여 건강에 대한 부분과 취미활동 부분에 있어서 예술, 운동,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다. 노인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임이다. 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을 잘 운영하는 두레교회, 김포중앙교회, 신일교회 노인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레 교회는 특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특강에 노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노후 설계와 끌리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는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치아 건강과 디스크를 다루는 것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강의이다.

<표 16> 신일교회 1학기 계획표 80)

일	전체 활동	취미활동	비고
3.12	개강 / 생일잔치	X	반편성, 취미활동반 편성
3.19	반별당	0	각 반별 활동
3.26	한담한의원 박정식 원장	0	계절별 한방 건강관리
4.2	만들기	0	
4.9	경희대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	0	계절별 양방 건강관리
4.16	현장 탐구학습	X	천리포 수목원(충남 태안)
4.23	고려대 여성학 교수 오경자 권사	0	글쓰기와 말하기
4.30	재미있는 영상 관람	0	
5.7	새문안 교회 변우량 장로	0	
5.14	선교사 현장 보고	0	
5.21	신나는 레크레이션	0	
5.28	“신이 보낸 사람” 영화 감상	0	본당상영/취미활동과 시간변경
6.4	지자체 선거일(휴강)	X	
6.11	수경 재배	0	담당자
6.18	자치회 축제	0	취미활동 반별 발표회
6.25	종강	X	생일잔치

80) Ibid.

김포중앙교회 노인대학인 상록대학은 불신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불신자들 중심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일 교회는 작지만 교인들 중에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영락교회 평생대학을 중심으로 노인목회의 실재를 논의하고자 한다. 영락교회 노인대학은 앞의 교회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노인목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 5 장

영락교회 노인 목회 실태

본 장에서는 영락교회 평생대학과 노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락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노인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영락교회 노인 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제 1 절 영락교회 평생대학

본 절에서는 영락교회 평생 대학에 설립배경과 목표, 운영과 조직, 목회 여러 보조 활동을 살펴보고 평생대학 운영 효과를 두레교회, 김포중앙교회, 신일교회와 비교하여 평가하겠다.

1. 교회 설립배경과 교육목표

가. 설립 배경

영락교회가 서울에서 배다니전도교회를 시작한 것은 1945년 11월 25일 백경보 장로 태에서 7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였다. 당시 한경직 목사는 북에서 피란 온 성도들의 기도처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교회를 설립한 것인데 영락교회만 오면 고향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영락교회로 모이게 되었다. 영락교회는 잃어버린 가족은 물론 고향사람들을 만나는 친교 현장이 되었다.⁸¹⁾ 영락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었을 때 교인 수는 부려 11,674명에 이르렀다. 한경직 목사의 목회 철학을 선교, 봉사에 두고 두었다.⁸²⁾ 교회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였

81) 김웅호, 추양 한경직 목사 (서울: 추양사, 1992), 13.

다. 한경직 목사와 북한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모여 더욱 더 성장을 하여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

평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무소유의 거장 한경직 목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가 되었다. 영락교회 평생대학은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했기에 1977년에 창립되었다. 그 후로 계속 발전하여 지금은 평생대학 모임에 출석 1,100명 정도가 되었다. 체계적인 형태의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나. 설립 취지와 목적

영락 교회의 노인대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령화시대 속에서, 한 평생 영락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성도들이 노년기의 삶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세워진 기관이다. 은혜로운 예배와 활발한 교제,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 등을 통해 구원 받은 노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여유를 만끽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노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함께 나누며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함께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세워졌다.

다. 표어 및 교육 목표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노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 영락교회의 평생대학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이웃의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 가도록 가르치기 위해 훈련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영락교회는 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인 교회이다. 평생대학 성도들은 북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고향을 늘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통일에 대해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2) 김웅호, 추앙 한경직 목사, 11.

라. 교육 내용 개요

담임목사의 설교를 함께 공과 공부로 서로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취임활동을 하면서 노후에 서로가 격려하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간다. 주일 학교와 같이 주일 들었던 말씀을 선생님들과 소그룹으로 나눈다.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주일 설교를 잘 알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예배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있고 특송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다. 특히, 특강을 통해 건강에 유익을 주는 시간도 가지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정치, 문화, 취미 등 여러 주제로 좋은 특강 강사의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 교육기간

1학기 16주 과정(3월 5일-6월 25일), 2학기-12주 과정(9월 3일-11월 26일)이다. 방학이 있다. 여름 방학은 7-8월이고 겨울 방학은 12-2월까지이다. 대학이기 때문에 방학에 숙제가 있다. 성경필사를 하는 데 방학마다 성경을 나누어 필사도록 한다. 1100명 중에 평균적으로 400명 정도가 숙제를 해 온다. 개강을 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다. 아울러 성경을 쓰고 잘 간직하게 하여 이후에 후손들에게 필사 성경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 참석하다보면 모두에게 성경을 쓸 수 있게 된다. 스스로도 목표 의식을 가지게 되어 계속 참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90세가 넘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성경 쓰기는 꼭 참여하려 한다.

2. 조직과 운영

영락교회는 내규를 정하고 있다. 노인대학에 따라 움직이며 그 내규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 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내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규를 정해 놓고 운영하려고 한다.

가. 자격

(1) 입학자격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만 71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2) 등록금

등록금은 연 1회 2만원이다. 받은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불우아웃 청소년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 평생대학 장학금을 전달할 때는 수어자를 예배에 참석시켜서 평생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 조직과 역할

교장은 담임목사이고 담당은 지도목사와 전도사가 있다. 교무는 교회에 헌신하는 권사 중 6명으로 정한다. 회계는 3명이고 교사회 회장과 부회장이 있다. 찬양대 지휘자가 있고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있다.

다. 중점사항

해마다 중점사항은 달라진다. 담임목사의 일 년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진다. 2015년도 중점사항은 주일예배 설교 내용으로 반별 모임 때 말씀을 공부한다. 한 주 전 본문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미리 교사 훈련을 한다. 방학 중 성경필사 및 장별 압송을 하고 취미 활동 반 컴퓨터 반 학생들은 타자로 성경쓰기 실시한다. 기도사역은 상반기에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한 집중 중보기도 하고 하반기는 대입 수험생을 위한 집중 중보기도를 한다. 기도의 집중과 구체적인 기도제목 확보를 위하고 상반기에는 교회 표어에 맞게 젊은 세대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예년대로 대입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장학사역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학금을 지역사회의 학교와 연계하여 모범 학생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등록금에서 일부를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학금으로 영락재단 산하 중, 고등학교와 교회내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것을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로 삼는다.

라. 학사 일정

<표 17>은 1학기 운영 계획을 표로 만든 것인데, 이 <표 17>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학기의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진행된다. 기존에 예배 중심에 프로그램을 하고 특강을 5월에 실시한다. 오후에 계속되어 지는 취미반의 모임이 있다. 매 주마다 선생

님들이 알아야 할 행정사항을 통보한다.

<표 17> 영락교회 평생대학 1학기 운영 계획표(반기일정: 1학기 17주) 83)

주	행사	특순	행정 사항	비고
2/19	교총무 모임			
2/26	1학기 교사준비모임		교사 식권 1.식당에서 나누어 줄 것.	
3/5(1주)	1학기 개강, 취미활동1	노엘 싱어즈	성경쓰기 제출 각반별 배정 및 안내	
3/12(2주)	취미활동2		성경쓰기 제출마감 암송 발표회	
3/19(3주)	취미활동3		성경쓰기 시상	
3/26(4주)	취미활동4			
4/2(5주)	4월 특강 / 취미활동5			
4/9(6주)	취미활동6			
4/16(7주)	취미활동7			
4/23(8주)	취미활동8			
4/30(9주)	취미활동9			
5/7(10주)	5월 특강 / 취미활동10			
5/14(11주)	취미활동11			
5/21(12주)	취미활동12			
5/28(13주)	취미활동13			
6/4(14주)	지방 선거 (휴강)			
6/11(15주)	취미활동15			
6/18(16주)	취미활동16			
6/25(17주)	1학기 종강, 취미활동17	전체교사		

마. 평생대학생 성, 나이 비율

83) 영락교회 평생 대학 운영 자료

영락평생 대학생들의 성, 나이 비율은 <표 18>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영락 평생 대학생들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00명 정도가 여성이다. 남성은 185명 정도이다.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생대학생들 중에 90세가 넘는 35명도 있다. 그만큼 건강하고 노인임에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은 76-80세로 519명 정도 된다. 대부분 영락교회 평생 대학은 70-80세까지 활동을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 평생대학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집에서만 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생대학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표 18> 평생대학 성, 나이 비율(2015년 1월 기준) 84)

연령대(이상-미만)	남성	여성	계
91-	13	22	35
86-90	20	114	134
81-85	39	268	307
76-80	69	450	519
71-75	44	446	490
누계	185	1300	1485

바. 일일 프로그램 진행 과정

다음은 영락 평생대학 학기 중, 시간대별 교육 일정표는 <표 19>에 나온 것과 같다. 오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분반 공부를 한다. 체조 시간과 찬양을 하고 기도와 찬양대 찬양 말씀과 축도를 하는 예배를 한다.

(1) 준비 교사회(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11시 30분에 모여 기도회와 그날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교사회로 모인다. 모여서

84) 영락교회 인원 구성 자료

기도회를 먼저 한다. 광고를 한다. 평생대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광고들을 전달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한 번 더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 시간에는 담임 목사 설교를 요약들 만들어 함께 공부를 하고 반별 성경공부 시간에 같이 나누며 말씀을 연구한다. 담임 목사의 설교는 담당목사가 요약을 한다. 문제 4개를 내고 그 안에 설교를 풀어가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교재를 만든다. 교사가 철저하게 미리 연구를 하고 식사를 하고 40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영락교회는 원 포인트 교육이라 하여 주일학교와 장년 예배에 본문을 같이 하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일 집안에서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잘 나누면 가정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좋게 만들어 준다. 가장 어른인 평생대학 학생들을 통해 말씀 중심 가정을 인도하게 한다.

<표 19> 평생 대학 일일 프로그램 85)

모임	시간(학기 중 매주 수요일)	장소
11:30-12:20	점심식사	제2식당
11:30-12:00	반 담당교사 성경공부	소 강 낭
12:40-13:00	반별성경공부모임	본당
13:00-13:20	체조 및 찬양시간	본당
13:20-13:50	기도/찬양대/말씀/축도	본당
14:00-16:00	취미활동	지정장소

(2)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장소는 교회 식당 지하 2층이다. 매 수요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 인원들은 각 교구에서 3여 지회원들이 돕고 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봉사 인원들이 오고 있다. 젊은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면서 교회의 어른들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

85) 영락교회 평생 대학 일일 프로그램 자료

다. 교회 안에서 공경하는 사상을 실천하게 하면 효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한다. 어떤 교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구들이 봉사하게 하므로 온 교회에 경로사상이 자리 잡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다.

(3) 반결 성경공부모임

평생대학은 공과를 하고 있다. 담임목사 설교로 교제를 매 주일 담당 목사가 만들고 그 설교로 서로 교제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며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어르신들의 삶을 듣는 시간이다. 교제 중심의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 보고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혹시나 병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반별로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목사와 전도사는 모든 어르신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반 선생님과 같이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있다.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연약한 어르신들을 서로 돌보고 있다. 노인이라고 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돕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므로 보람 있게 만들어 준다. 어르신들에게 끝임 없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은 좀 더 연약한 어르신들을 서로 돌보는 일을 자주 보게 된다. 소풍을 갈 때도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그 반의 다른 어르신들이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서로를 사랑하므로 고독을 이겨낼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오전 예배(오후 1시-2시)

영락교회 평생 대학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를 한다. 체조는 본당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시행한다. 전도사와 찬양대원들이 함께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행한다.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다. 그 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 찬양은 주로 찬송가를 한다. 어르신들이 젊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을 해야 한다. 변화를 싫어하는 세대라 요즘 복음성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도사와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모두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다. 율동을 함께 하며 몸의 움직임을 더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고 예배로 다 같이 나아가는 시간이다.

기도는 반 별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 반별로 특송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의 선생님이 성경봉독도 하게 한다. 그 반이 예배를 다 받아 주관하도록 한다. 반이 많기 때문에 일 년 반 정도에 한 번 하게 된다. 그 반은 예배를 섬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 준비도 하고 옷도 같이 맞추어 입고 정성껏 준비를 한다. 그 다음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다. 평생대학 찬양대는 13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찬양대석에 가운데를 입고 찬양을 한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설교는 목사와 전도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며, 설교는 평생대학 학생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로 노년의 생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반별로 특송을 한다.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반 특송이 있으면 같은 옷을 입고 찬양하며 준비를 하고 같이 즐겁게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광고를 하고 축도로 예배는 마쳐진다.

(5) 취미활동반 운영(오후 1시-4시)

취미활동반의 운영은 <표 20>에서와 같이, 취미반은 서예반, 묵화반, 합창반, 한글 사랑반, 수지침반, 하모니카(초급) 하모니카반(중급), 컴퓨터반(초급), 한국무용반, 드림스케치, 사물반, 손뜨개반, 몸찬양, 실버 댄스, 기타반, 아코디언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교사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교회에서 은퇴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원자들이다. 여러 분야에 뛰어난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자가 배우고 싶은 곳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장이 다 마련되어 있다.

<표 20>를 보면, 다양한 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자신의 취미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전에 배우기 원했는데 못했던 것들도 이후에 배울 수 있다. 강사진이 상당한 실력이 있게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사. 개강 및 종강 행사

(1) 개강 전 교사 수련회

개강 전에는 교사 준비 수련회가 있다. 교사들이 먼저, 준비를 하면서 개강 준비를 하고 있다. 반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며, 개강 전에는 교사들이 미리 모여 의논을 하고 여러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하며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한다. 먼저, 설교를 통해 한 학기를 다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동기 부여를 한다.

<표 20> 평생 대학 취미반 구성표 86)

담당자		장소	시간대
서예반	담당자	봉사관 404	10:00-11:30
목화반	담당자	봉사관 404	14:00-16:00
합창반	담당자	봉사관 505	14:00-16:00
한글사랑반	담당자	50주년 708	14:00-16:00
수지침반	담당자	50주년 701	14:00-16:00
하모니카 (초급)	담당자	50주년 711	14:00-16:00
하모니카 (중급)	담당자	50주년 704	
컴퓨터 (초급)	담당자	봉사관 401	14:00-15:00
컴퓨터 (중급)	담당자	봉사관 401	10:00-12:00
한국무용반	담당자	벤엘 발레실	10:00-12:00
드림스캐치	담당자	봉사관 504	14:00-16:00
사물반 (장구)	담당자	50주년 소강당	14:00-16:00
손뜨개반	담당자	50주년 709	14:00-16:00
몸찬양	담당자	벤엘 발레실	14:00-16:00
실버댄스	담당자	50주년 301	14:00-16:00
	담당자	50주년 302	14:00-16:00
클래식 기타반	담당자	교육관 304	14:00-16:00
아코디언반	담당자	50주년 702	15:00-17:00
사진반	담당자	50주년 710	14:00-16:00
오카리나반	담당자	50주년 608	14:00-16:00

다음으로 기도회를 한 후에, 개강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별 명단을 미리 나누어 준다. 언제 모인다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면서 방학동안 아픈 곳은 없는지 잘 지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반자리도 체크해야 한다. 본당 어니로 와야 한다고 소식을 전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생님과 어르신들 미리 소통을 하게 하므로 미리 친하게 한다.

반 선생님들은 3년에 한 번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선생님에게 계속 그 반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도 있어야 하므로 원칙으로 세웠다. 자리도 2년에 한 번 변경을 한다. 계속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변경되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21>에서와 같이 교사교육 일정은 개강 전에 이루어진다. 장소는 봉사관 405호이고 2월 26일 수요일 11시 30분-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평생대학이 이번 학기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와 변경된 사항과 교사 기도회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 2015년 1학기 영락 평생대학 봄맞이 교사 교육 87)

시간	행사	장소	담당
11:30-13:00	점심식사 및 티타임	제1식당	입구에서 식권배부
13:00-14:00	특강 (손영규 목사) <2014년 평생대학의 방향성 및 성경공부>		
14:00-14:30	학기진행과정 안내 및 기도회		임현우 전도사

(2) 개강 예배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개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평생대학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방학 숙제인 성경 쓰기를 검사한다.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성경을 쓰는 것이 방학 숙제이다. 또한 조금한 선물도 준비한다. 오랜 만에 만났으니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

87) 영락교회 평생 대학 교사 교육 자료

기도 한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처럼 신선함도 있고 서로들 반가운 표정이 넘쳐나는 자리이다.

(3) 종강 예배

종강 예배 때는 배다니홀에서 취미 활동 반 발표회로 종강을 한다. 모든 취미 반은 발표회에 준비를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한다. 모든 반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자리가 된다. 평생 대학생들은 모두가 참여하고 즐거운 자리로 종강을 맞이한다.

아. 오전 예배

평생 대학 예배는 수요일 오후 1시-2시까지 한 시간정도 진행된다. 노인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특성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열린 예배 순서와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체조

예배 전에 몸을 풀기 체조를 시행한다. 식사를 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졸리는 시간에 체조를 먼저 시행한다. 이 시간에는 모든 노인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푸는 운동을 시행한다.

(2) 찬양

노인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한다. 찬송가 위주로 한다. 교사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찬양대를 구성한다. 주로 율동을 하게 되며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따라하게 한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익을 준다.

(3) 기원

예배인도자가 짙막한 기도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한다.

(4) 교사기도

반별로 돌아가면서 교사들이 기도를 한다. 그 날 특송을 하는 반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를 한다. 그 때의 기도는 주로 노인들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다. 노년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

(5) 말씀 봉독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다. 성경을 가지고 나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주보에 구절을 적어준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한다. 성경을 읽으므로 글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찬양대 찬양

평생대학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평생대학 찬양대는 은퇴가 없다. 70세이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은퇴하지만 평생대학 찬양대는 은퇴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함께 찬양 준비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한다. 자체적으로 총무도 뽑아 찬양대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찬양에 은사가 있는 노인들이 찬양으로 함께 보내고 있다.

(7) 말씀

담당목사와 전도사가 준비를 한다. 매 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 노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전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전에 헌신을 늘 기억하도록 말씀에 주제가 담겨져 있다. 어두운 삶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전에 있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한다.

(8) 반별 특송

반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준비한다. 옷을 준비하고 찬양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한다. 교사와 함께 준비를 해서 은혜롭게 그 시간을 준비한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 연습을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눈다. 같이 옷을 사기도 한다.

(9) 광고

그날 광고를 하며 꼭 전해야 하는 사항만을 간결하게 광고를 한다.

(10) 축도

담당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설교 메시지를 요약하여 목사가 축도를 한다.

(11) 인사

목사와 전도사는 교회 앞 현관으로 나아간다. 축도 후에 나아가서 인사를 나눈다. 목사와 전도사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다. 손을 꼭 잡아 주면서 건강하시라고 인사한다. 인사하는 시간은 중요하다. 교역자들의 손을 잡으면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남의 손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 넘어질 것 같은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기도 한다.

자. 심방

학생들의 심방은 주로 교사들이 하고 있다. 제적만 1100명이 넘기 때문에 목사와 전도사가 다 다닐 수 없다. 하지만 꼭 목사와 전도사가 가야 할 경우는 가고 있다. 교사의 요청이 오면 교사와 동행한다. 노인 성도들은 교구에서 소외 될 수 있기 때문에 교구 목사와 협력하여 노인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교구 목사들에게 노인 성도들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교구활동을 잘 하지 않고 평생대학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교구목사와 전도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노인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알고 교구 목사와 전도사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차. 상담

주로 목사와 전도사가 노인들의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상실해 있는 이들을 함께 심방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평생대학은 노인 성도들이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담당목사와 전도사가 역부족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상담부로 요청을 한다. 그곳에는 법률, 가정, 의료, 부동산등 여러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카. 반 운영

반은 6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마다 노인들의 수는 차이가 난다. 각 반은 선생님이 한 명이고, 각기 반마다 인원은 차이가 난다. 많은 반들은 18명도 있고 적은 반은 2명도 있다. 부오 반은 선생님들과 총무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취미특활 반은 예배를 끝내고 취미 반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나눈다.

3. 목회 보조 활동 및 행사

평생 대학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먼저 소풍에 대해 살펴보고 어버이 행사와 스승 행사, 취미 반 전시회와 발표순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평생대학은 많은 행사를 한다. 평생대학생들을 위한 행사이고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고 활동을 통해 활력을 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가. 소풍

일 년에 한 번 소풍의 행사를 한다. 차를 빌려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소풍을 한다. 많은 이들이 출타를 하여야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일 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이 소풍을 기다린다. 출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자녀들도 바쁘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는 일이 잘 없다. 노인들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소풍 갔던 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린다.

(1) 소풍일정의 주의 사항

소풍의 일정은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밤에 집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근교로 소풍장소를 정하게 된다.

또한 차량은 잘 준비를 해야 한다. 1번에 500명 이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사

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자기의 반을 잘 관리해야 한다. 조금 건강한 어르신들은 약한 어르신들을 돌보기를 요청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 또 광고를 통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소풍을 자제하도록 권유한다.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만큼 소풍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자기 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동의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2) 소풍에 대한 교사 숙지 사항

교사에 대한 숙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풍은 교사들이 노인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하므로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나. 어버이날 및 스승의 날 행사

어버이날은 노인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한다. 떡과 선물을 주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다.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음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한다. 고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선생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의 시간이다. 스승의 날에는 교사들에게 준비를 하여 그날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생님들은 자원하여 봉사하는 이들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주면서 긍지를 갖게 해 준다. 물론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한다. 어르신들은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하게 된다.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충분히 값지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선생님의 헌신으로 보여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의 위로 자리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시간이 된다.

다. 취미반 전시회

취미 반에 활동했던 그림이나 손뜨개나 그리고 컴퓨터 작품들을 전시한다. 대예배실 마당에서 전시를 하며 온 교우들이 그림을 보고 평생대학의 활동을 보도록 한다. 평생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는다.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좋아한다. 자녀들이 와서 그림을 보게 되면 좋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대예배 때 광고를 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그 작품을 보고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어르신들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여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라. 무료진료 및 무료급식

서울 중구청에서 무료로 치매 예방을 하고 있으며 무료로 건강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항상 건강에 의하도록 선생님들도 주지시키고 있다. 선생님들은 평생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연락하여 건강한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치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한다. 건강은 과신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늘 자신의 건강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한다.

마. 교사 수련회

교사 수련회는 일 년에 한 번 시행한다. 이 교사 수련회를 통하여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주로 1박 2일로 일정을 두고 있다. 오전에는 주로 위로회로 보내고 저녁에는 영성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도회와 특강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이 된다.

바. 교사 교육

일 년에 두 번을 하고 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개강 전에 실시를 한다. 교육을 통해 더 어르신들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다. 방학 동안 너스헤진 마음을 추스르고 강한 사명으로 다시 출발하자는 의미로 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제 2 절 영락교회 노인복지

본 절에서는 영락교회 노인 복지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영락교회의 노인 복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금 현재 영락노인복지의 기관 소개와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려고 한다.

1. 영락교회 노인 복지 역사

영락교회 노인 복지 역사는 1941년에 시작을 하여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다. 이곳에는 1941년에서 1960대까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그 이후 200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41-1960년대

월남 후 6.25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거처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기관을 만들어 돕고 싶은 소망이 한경직 목사에게 있었다. 영락교회는 설립 초부터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경직 목사는 소외된 자, 버림받는 자들에게 늘 관심이 있었다.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1950년 6.25전란으로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제직회에 노인들을 구호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급선무임을 제의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621번지 소재 대지 1, 200평 건물 4동으로 당시 성북경찰서 귀속 재산을 1952년 8월 4일 1,400만 원정으로 매수하여 양로시절을 짓게 되었다.⁸⁸⁾ 1950년은 전쟁이 있던 해이다. 그 때에 어떻게 노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사실은 영락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다.

그 후에 한경직 목사는 건축한 건물을 영락 경로원으로 결정하고 초대 이사장으

88) 영락사회 복지 재단, *한경직 목사 복지 사역* (서울: 영락사회 복지 재단, 2009), 36.

로 한경직 목사가, 초대원장에 이재명장로, 상임간사에 정상일 집사를 택하였다. 이곳에 들어오는 노인들이 많아 적격자를 선정하여 남 6명, 여 19명, 직원 2명을 선임하고 1952년 11월 12일 개원식을 기행하였다.⁸⁹⁾ 1958년 12월-1958년 12월까지 제 2대 원장과 이사장이던 한경직 목사는 노인들의 보호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1952년 11월 15일 서울 시장에게 본 경로원 사업을 보호하라고 촉구하고, 1952년 12월 22일 서울 시장으로부터 양로원시절 임시 승인을 받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1958년 5월 1일 서울 시장으로부터 재단 법인 영락 경로원 설립인가를 취득하였다.⁹⁰⁾ 이렇게 영락 경로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락교회는 설립초기부터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1965년에는 영락교회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30명밖에 보호할 수 없는 협소한 돈암동 건물을 정리하고 새로운 양로시설을 경기도 광주군 풍산리에 확장기로 결정하였다.⁹¹⁾

나. 1970-1980년대

1980년 9월 13일 한경직 목사의 주례와 이사와 교우 노인 200여명과 기공예배를 드리고 1980년대 11월 10일 박조준 목사의 주례 하에 내외귀빈 관계자 교우, 노인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준공 예배를 드린 후에, 이때부터 환자들을 격리 보호하게 되었다.⁹²⁾ 1986년에는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4,000평 부지 위에 연건평 698평의 규모의 신축하여 1985년 5월 18일 기공식 예배를, 1986년 11월 준공예배를 드렸다.⁹³⁾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다. 1990년대

1994년 8월 16일에는 영락요양원 준공예배를 드렸다. 1997년 6월 25일에는 연변 영락경로원에 신축공사비를 전달하였다. 영락 재가노인복지 상담소 1992년 3월 하남

89) 영락사회 복지 재단, *한경직 목사 복지 사역*, 37.

90) Ibid.

91) Ibid., 40.

92) Ibid., 45.

93) Ibid., 47.

시 지역 사회 홀로 생활하는 요보호 어르신들의 어려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무의탁 노인 150명을 돌보는 기관이 되었다. 1994년에는 5월에는 영락노인 복지 센터 설치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⁹⁴⁾

라. 2000년대

(1) 영락경로원

1939년 한경직 목사는 신의주에서 홀로된 노인을 돌보기 시작하여 1952년 4월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무의탁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을 기독교정신에 의하여 구현하고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경로원을 설립하여 2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시작하여 1965년 현재의 하남시 풍산동으로 이전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⁹⁵⁾

(2) 영락요양원

1982년 경로원의 어르신 환자를 격리 보호시작 하였으며 1993년 8월에 노인 요양원을 설립하고 1994년 7월 영락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 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3)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영락노인 전문요양원은 영락교회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56-12번지 내에 건축되었으며, 한경직 목사 추모 10주기를 맞이하여 한경직 목사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중증 요양 어르신과 그 부양가족에게 인지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10월 정원이 57명에서 61명으로 증원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게 된다.⁹⁶⁾

94) 영락사회 복지 재단, *한경직 목사 복지 사역*, 37.

95) Ibid., 48.

(4) 영락가정봉사파견센터/영락주간보호센터

1992년 3월 하남시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요보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립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지역사회 치매, 중풍의 요보호 어르신들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여 가족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설립의의가 있다.⁹⁷⁾

2. 영락 노인복지 센터 소개

영락 노인 복지는 영락 경로원, 요양원,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은빛사랑채 영락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순서대로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락 경로원 소개

(1) 설립배경

1941년 9월 한경직 목사가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남신 의주 보린원의 같은 대지에 200평 규모의 노인관을 지어 시작된 것이 노인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2) 사업의 목적

기독교 성훈과 사회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설개요

시설종류는 노인주거 복지시설·무료양로원으로 되어 있다. 시설장으로 권기운원장이 있다. 설립일은 1952년 4월에 교회 초창기에 설립이 되었다. 6.25 전쟁 때 갈 때 가 없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에 설립을 하게 되었다. 지금 입소 정

96) 영락사회 복지 재단, *한경직 목사 복지 사역*, 53.

97) Ibid.

원은 100명 정도이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4) 조직 구성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사회 복지사 6명, 요양보호사 2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 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사는 6명으로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영양사도 두고 있고 조리원 2명도 정식 직원으로 두고 노인들 식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5) 사업소개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사업은 사업계획 평가, 회의, 직원교육 및 연수하고 있다. 사정·상담 사업은 어르신 개별 및 집단 상담,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상담이다. 일상생활 지원 사업은 어르신식사,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원조이다. 보건의료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 유지 및 증진, 입 퇴원관리, 투약관리를 하고 있다. 재활사업은 물리치료, 사회적응 향상, 사회적 증진을 하고 있다. 외상환자 및 치매 사업은 외상 및 치매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심리 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동, 집단활동, 지역행사 참여를 돕고 있다. 지역사회연계 사업은 자원봉사관리, 후원자관리·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다.

(6) 입소안내

입소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7) 주소

시설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산 33번지에 위치에 있다.

나. 영락요양원

(1) 설립배경

1980년 경로원의 어르신들 중 아픈 어르신들 격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 발판이

되어, 1993년 노인 요양원 설립인가를 받고 영락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4년 8월 준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2) 사업의 목적

기독교의 성훈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을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설개요

시설 명칭은 영락요양원이다. 가칭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시설장은 권기용 원장이고 시설규모는 995.64(301평)이고 입소정원은 장기 50명/단기 3명이다. 지금의 현황은 어르신 50명이 거주하고 있다.

(4) 조직구성

원장은 1명이며 사무국장은 1명, 사회복지사 4명, 요양보호사 16명, 촉탁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위생원 1명으로 계 30명이 일하고 있다.

(5) 사업소개

상담 및 생활지도 사업은 개별상담 및 위생·영양관리 등 일상생활원조 사업이다.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는 건강관리 및 재활훈련 사업하고 있다. 외상 및 치매환자 특별보호: 보호 서비스 및 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며 심리사회 재활사업은 집단 활동 및 치료, 여가활동, 사회성훈련 등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자원 봉사자 및 후원결연 사업이다. 호스피스 간호 및 장례사업도 겸하여 하고 있다.

(6) 입소안내

대상자는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장기요양1, 2등급)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7) 주소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납동 산 33번지이다.

다. 양락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 기관소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2) 시설개요

시설종류는 계가노인복지시설이고 시설장은 권기용원장이 일하고 있다. 설립일은 1992년 2월이며 이용정원은 80명이다.

(3) 조직구성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계7명이 일하고 있다.

(4) 사업소개

대상자 서비스 지원은 상담지원, 기본 서비스(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 특별서비스(목욕, 용변 수발), 이·미용 서비스, 교육(보건, 응급사태, 소방, 자립·자활교육), 생활실태조사, 건강실태조사 등이 있다. 가정봉사원 활동 및 관리는 가정봉사원 활동 관리(단합대회, 생신카드 발송, 경조사 관리 등), 모집 및 홍보, 가정봉사원교육, 가정 봉사원 포상 등이 있다. 일일보호 및 행사는 목욕, 중식, 의료서비스, 집단활동 제공하고 있다. 특별 행사는 절기행사(부활절예배, 추수감사예배, 성탄절 예배), 온천나들이, 어버이날 기념행사, 생신잔치, 가든파티, 체육대회, 공연관람이 있다.

저소득 계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목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계가 노인 가정에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내용은 주 2회 도시락 제공, 주 2회 일일보호 식사제공, 식사배달사업 욕구조사, 식중독예방교육 등이 있다.

유급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은 유급 가정 봉사원 활동 관리 및 간담회 실시, 외부· 자체교육실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관견학, 단합대회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파견사업의 자격은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노인관련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하고 있다.

노인 돌봄이 바우처 구축의 가격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상,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로 하는 어르신으로 본인부담금 36,000원(저소득층 18,000원)으로 월 9회, 27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 수발 서비스(목욕, 용변등), 가사지원서비스(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개인 활동 서비스(일상업무 대행,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홍보사업으로 소식지, 나눔지, 홈페이지, 플랜카드를 통한 홍보가 있다. 후원관리 사업은 결연 후원금, 일반후원금, 후원물품 확보 및 후원영수증 교부하고 있다.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은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원활한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모색을 하고 있다.

(5) 이용안내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이다.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고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며 기타 복지시설 기관장이 사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가 가능하다.

(6) 주소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60번지이다.

라. 영락소규모요양원

(1) 기관소개

기존 자정 봉사원파견센터, 주간 보호센터의 서비스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

로 소규모형태의 지역밀착형 시설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설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부양가족의 24시간 부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소규모단위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편입이 쉬워져 가족들이 수시로 방문하기 편리하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08년 11월 개원하였다.

(2) 사업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적응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여 방문요양, 주간보호, 입소 서비스 등 각종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락한 노후를 지원하다.

(3) 시설개요

시설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가칭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시설장은 권기용 원장이고 설립일은 2009년 1월이다. 대상인원은 요양 15명, 주간보호 7명이다.

(4) 조직구성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6명, 간호사 1명, 모두 11명이 일하고 있다.

(5) 사업소개

기본사업은 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방문요양 사업이다. 각종사업은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 사업관리 및 지원, 재정 및 회계, 사정사업, 상담사업, 일상생활 지원 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사업, 재활사업, 치매환자관리사업, 가족관계 지원 사업, 심리 사회 지원 사업, 여가 활동 지원 사업, 종교 활동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홍보사업, 후원개발사업, 시설환경사업 등이 있다. 일상생활 지원 사업은 목욕, 식사, 간식, 의료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수지침교실, 건강체조, 요가교실, 건강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여가 활동 지원사업은 미술교실, 산책, 치료 레크리에이션, 작업치료, 이야기나누

기, 티타임 등이 있다. 절기 행사 사업은 명절행사,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예배, 성탄절예배, 나들이, 어버이 날 행사, 생신잔치, 가든 잔치, 체육대회, 공연관람 등이 있다. 홍보 행사는 소식지, 나눔 지,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렛, 전단지 홍보를 하고 있다. 후원 관리 사업은 결연후원금, 일반후원금, 후원물품접수, 후원영수증 교부 등이 있다. 지역사회연계사업은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사업이다.

(6) 이용안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이다.

(7) 주소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60번지이다.

마. 은빛사랑채 영락노인 주간보호센터

(1) 사업 목적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낮 동안 보호 및 각종 서비스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심리적, 신체적 재활을 도모하여 가족에서는 낮 동안의 보호를 통해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시설개요

시설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가칭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시설장은 권기용원장이다. 설립일은 2005년 7월이다. 이용정원 14명이다.

(3) 조직구성

원장은 1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모두 7명이 일하고 있다.

(4) 사업소개

각종 사업은 조직 운영과 인사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 사업관리 및 지원, 재정 및 회계, 사정사업, 상담사업, 일상생활 지원 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사업, 재활사업, 치매환자관리사업, 가족 관계 지원사업, 심리 사회 지원사업, 여가 활동 지원사업, 종교 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자원봉사자관리사업, 홍보사업, 후원개발사업, 시설 환경 사업 등이 있다. 일상생활 지원사업은 목욕, 중식, 간식, 의료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수지침교실, 건강 체조, 요가교실, 발 마사지,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여가 활동 지원사업은 미술 교실, 노래교실, 산책, 치료 레크리에이션, 작업치료, Tea Time, 요리교실, 성경공부, 인지프로그램, 감상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다. 절기행사 사업은 명절행사,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예배, 성탄절 예배, 나들이, 어버이 날 행사, 생신잔치, 가든파티, 체육대회, 공연관람 등을 있다. 홍보사업은 소식지, 나눔지,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렛,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후원 관리사업은 결연후원금, 일반후원금, 후원물품 접수 및 후원영수증 교부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모색하고 있다.

(5) 이용안내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이다.

(6) 주소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60번지이다.

3. 영락 노인 복지 평가

가. 긍정적 평가

(1) 환경직 목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

영락교회는 노인 복지 사업을 창립 초부터 시작을 하였다. 환경직 목사는 노인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왔다. 1941년 9월에 이미 그는 노인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적은 시대였다. 하

지만 한경직 목사는 노인의 연약함을 알고 그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는 것을 놀라움을 갖게 한다. 특별히 한경직 목사는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었다. 한결같이 추진해 왔다. 그 정신을 영락교회는 이어 받아 지금까지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노인 공경에 대한 생각도 변함이 없다. 영락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시설들에서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서 찬양을 하고 목욕 봉사를 돕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봉사에 대한 것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경직 목사의 사상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락 복지센터는 지금의 흐름 속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많은 발전도 해 왔다. 하지만 창립 초창기부터 가진 그 정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직원들과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 일에 헌신하고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서로 힘을 보태고 있고,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락교회 복지 센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결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이룰 수 없는 사업이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사명을 끝여지지 않았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영락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인 복지에 일관성 있는 정신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노인들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이다.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대적인 요청이다. 지금 노인 인구 폭발로 이 시대에 노인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대적 사명이다.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초창기에 그 정신을 가지고 영락교회는 계속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가난한 노인들을 향한 복지

한경직 목사는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 영락노인복지센터의 대상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우선하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장기요양보험 1, 2, 3등급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보게 된다. 가난한 이들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삼은 실버 기관과는 다른 점이 있다. 실버 기관은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영락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돈이 있으면 갈 수 없는 시설이다. 가난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다.

영락교회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설에 머물지 않고 찾아가는 노인 복지를 하고 있다. 집에 찾아가서 노인들의 생활을 돕고 있는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은 많은 노인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목욕을 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은 복지의 하나이다.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채우는 복지이다. 가난한 이들이 할 수 없는 생신잔치, 가든파티, 체육대회를 열어 줌으로 혼자 있으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인간으로 존엄성을 알게 하도록 한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한다. 가정마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특별히 고독한 노인들에게 대화의 벼이 되어 준다. 친구가 되어 준다. 그들이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 상담을 해 준다. 그들은 “영락교회가 있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한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가난한 이들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특별히 노인들은 더 차별 받고 무관심속에서 살아간다. 따뜻한 도시락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가난한 노인들과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다. 부활절 예배도 같이 드려줌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생각하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한다. 간접적으로 가난한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영락교회 노인 복지는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돈이 있는 노인들은 얼마든지 좋은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노인들은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차별받고 냉대 받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근본적인 복음의 정신으로 다가가고 있다.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영락교회 노인 복지는 계속해서 가난한 노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3) 교회 넘어서 지역 사회로 가는 노인복지

영락교회 노인 복지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교인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지역 주민이 우선시 하고 있다. 교인이라고 특권을 가지는 일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격이 있다. 지역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노인들은 이제 곧 천국

으로 가야 하는 이들이다.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들이 교회의 섬김으로 예수를 알게 된다. 영락복지 시설에 들어온 노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린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생활하다보면 어느새 신자가 되어 있다. 계속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변화가 되어 진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다. 가족들도 좋은 모습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있다. 노인 복지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영락교회는 교회를 넘어 봉사를 계속해 왔다. 노인복지도 같은 정신으로 지역사회로 가고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가장 고통을 겪을 시기에 노년에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다가가고 있다. 아쉬운 점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지만 시설에 들어가기에 수가 한정 되어 더 많은 노인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락 복지는 점점 더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4) 전문 치료로 향하는 노인 복지

영락교회 노인 복지는 전문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 심리 치료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음악치료도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도 하며 사회적응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여가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 더욱 더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치매 예방 훈련과 사업도 하고 있다. 건강 증진의 교육도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공부한 전문가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복지는 삶으로 향해야 한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 욕구에서 넘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는 노년의 삶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영락 노인 복지는 좀 더 발전을 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노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 개선할 점

(1)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노인 복지

영락 노인 복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노인들에게 더 필요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노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

게 좀 더 좋은 도움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거듭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알려 주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윤택함이 있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2) 협력하는 노인 목회

일반적으로 연계란 각각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식, 정보, 시설, 장비 같은 자원을 교환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협력 관계는 이미 있는 관계의 부제와 각 조직의 통합을 양극으로 다양하다⁹⁸⁾ 교회에서는 노인 복지에 신경을 쓰고 정부와 복지 시설과 병원과 연계하여 노인의 복지를 위해 힘을 쓰는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교회가 어떻게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영락교회 노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락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시설을 가지고 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중심으로 노인들을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더 많은 노인들을 섬기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더 많은 사회적 약자 노인을 향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사역을 펼쳐야 할 것이다.

98) 박차성 외, *한국 노인 복지론*, 253.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령화를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까? 두레교회, 김포중앙교회, 신일교회 노인 목회를 대해 사례연구를 했다. 영락교회 평생대학과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영락교회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모든 교회에서는 교회 반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노인 목회를 향한 생각은 다 있었다고 하지만 더 많은 노력과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들은 노인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 반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영역을 확장을 해 노인들의 삶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 그들의 육체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도 한 곳도 소홀해 여겨서는 안 된다. 교회들은 고령화를 준비를 하고 계속 노인을 향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의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노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인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논의하였고 노인들에게 왜 도움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목회 대상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의 일반적 개념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의 인식과 연령학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개념을 다루어 보았고, 고 노년기의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신체 및 생리적, 특성과 지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논의하였으며, 한편으로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노인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노인이란 누구인가를 고찰하였다. 노인들을 잘 이해함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현대사회 속에서 노인 증가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았다. 노인들의 신체적인 문제, 노인들이 당하는 슬픔과 상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경 특성에 따르는 고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노인 사역을 잘 운영하고 있는 두레교회, 김포중앙교회, 신일교회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이들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학교에 대해서 조사하고 프로그램과 특징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각 교회마다 지역에 맞는 노인목회를 하고 있었고 특색이 있게 노인목회를 하고 있었다.

5장에서는 영락교회 평생대학 전체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과 조직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도 함께 논의해 보았다. 또한 영락교회 노인 복지의 역사와 평가를 하였다. 영락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 교회들은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그들을 돕고 사회 기관 중에 가장 앞장서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보다 더 노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들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함께 안고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노인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작은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 연구를 맺는다.

부록

영락평생대학 운영규칙

평생대학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운영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규정이 필요하여 정하게 되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영락교회 평생대학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평생 신앙교육이라는 가치 속에 노년기 성도들이 복음과 영락교회 신앙유산을 통하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풍성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교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회원

본회 회원은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교무, 총무, 반담임교사, 취미활동반 교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로 구성된다.

교사는 본교회의 제직이어야 한다.

학생은 만 71세 이상의 본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정해진 접수기간에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제 4조 조직

본회의 교장은 담임목사이며, 지도목사 1인, 지도전도사 1인을 두어 교장의 지침에

따라 조직을 운영한다.

본회는 행정상 제직회 친교부 안에 둔다.

본회의 조직 구성은 교무팀, 총무팀, 각 반과 교사회, 취미활동반, 찬양대로 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도교역자와 회계, 서기, 교무대표, 총무대표, 교사회대표, 교회부대표, 찬양대 지휘자, 특별활동반 교사대표, 실버찬양팀 대표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지도목사이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인사, 예결산, 연간 사업 및 중, 장기 계획을 심의한다.

제 2장 인사

제 6조 교사의 정년 및 보직 임기

반 담임교사의 정년은 만 63세이다.

(단, 담임교사 순환제의 상황에 따라, 해당 임기만큼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총무의 정년은 만 65세이다.

취미활동반 교사의 정년은 만 70세이다.

각 반의 교사순환은 절대적 3년 주기로 실시한다. (2014년 현재 1년차)

교무와 총무의 보직임기는 최초 3년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취미활동반 교사, 찬양대 지휘자, 실버찬양팀의 보직 임기는 최초 3년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사순환은 모든 교사 보직을 범위로 한다.

제 3장 행정업무 및 임무

제 10조 구성

행정업무는 교무와 총무가 분담하여 수행하며, 성경공부반, 특별활동반, 노인대학 찬

양대는 각각 특성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실버찬양팀은 지도 전도사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노인대학 예배의 찬양을 담당한다.

제 11조 임무

교무는 반교사 관리 및 학생지원 업무, 등록금 관리등을 담당하며, 지도교역자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필요시 총무와 협력한다.

총무는 식당 봉사 및 선물준비, 교회 예산 관리등 어르신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섬기는 일을 담당하며, 지도교역자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필요시 교무와 협력한다.

성경공부반 교사는 학생들을 목양의 심정으로 섬기며, 학생들에게 전화심방 및 노인대학 전반적인 활동을 안내하며, 성경공부를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아 학생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책임진다.

취미활동반 교사는 노인대학 학생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취미활동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노인대학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대표를 통해 분기별 운영위원회에서 각 취미활동별 예산 및 활동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활동시 지도교역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노인대학 찬양대는 노인대학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며, 지휘자를 통해 분기별 운영위원회에서 찬양 및 예산, 행사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활동시 지도교역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실버찬양팀은 노인대학 예배 전 찬양을 담당하며, 간단한 체조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사 및 팀은 필요시 상호간 업무 협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4장 제정

제 12조 수입

노인대학의 재원은 교회의 예산과 등록금으로 한다.

제 13조 지출

교회의 예산과 등록금을 통합하여 연간 예산을 확정한다.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하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지출하며, 긴급지출은 지도교역자의 승인 하에 지출하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할 수 있다.

심방비 및 조의금 지출은 당해 등록한 학생에 한한다. (당해연도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 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부터 다음해 1월 까지로 한다.

제 5장 부칙

제 15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6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2012년 2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고수연 외. *새로운 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6.
- 권분상. *조직신학 1-2*. 용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
- _____. *부흥어개인 1907*. 성남: 브니엘, 2006.
- 권용근. “텔리히의 불안이해와 교육적 적응.” *신학과 목회* (1995).
- 권중돈.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4.
- 김선영. *믿음과 사랑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참말, 1993.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그리스도와 가이사*.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김응호. *추앙한경적목사*. 서울: 추양사, 1992.
-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 김찬중. “노인선교를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서의 노인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 남인자. “노인도 빨간 신호등.” *밝은 노후* 4 (2003).
- 노영섭.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서울: 한림출판사, 1997.
- 맹용길. *기독교와 미래*. 서울: 쿤란 출판사, 1995.
- 박동석. *고령화쇼크*. 서울: 서울: 굿인포메이션, 1999.
- 박석돈. *노인 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삼푸사 2004.
- 박수암. *마태복음*. 서울: 기독교서회, 2004.
- 박차성, 김옥희, 임기욱, 이정남, 정상양, 배창진. *한국 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3.
- 박창진. “노인 복지와 노인 선교를 위한 실제적 방법.”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3.

- 사미자. “노인의 심리.”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서울: 애영커뮤니케이션, 2005.
- 송남순. “교회에서 노인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 안상기. “교회 노인학교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대학원, 1999.
- 임예선. *목회과정상담*.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오근재. *퇴적 공간*. 서울: 민음인, 2014.
- 오성춘. “노인문제와 노인목회의 가능성.” *안양원로원 준공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선 사업 재단, 1983.
- _____. “목회상담의 독특성.” *기독교사상*. 1985년 1월호.
- 육성필외. *노인 자살과 위기개입*. 서울: 학지사, 2011.
- 이명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서울: 지성 문화사, 1994.
- 이장호. *노인상담 경험적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이철우.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05.
- 임양택. *생명 공동체 교육과 노인의 희망*. 서울: 쿤란출판사, 1998.
- 임창복. *노인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4.
- 전천해.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교육목회*. 1998년 2월호.
- 전호진. *한국 교회와 선교*.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85.
- 정태기. *위기 목회 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조용훈. *지구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주선애. *한국 교회와 노인 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 최윤배. *종교 개혁과 칼뱅*.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6.
- 한정건. “성경이 말하는 노인.” *교회와 교육*. 2004년 여름호.
- 호태석, 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서울: 갈릴리, 1995.
-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1.

황의영. *목회상담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2. 번역서적

Frost, Michael. *바보예수*. 신철희 역. 서울: IVP, 2005.

G. S. Walker. *칼빈과 교회*.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Hokendijk, J. C. *흘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Ladd, George. E.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성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2.

Macher, Frank Schirr. *고령사회 2018년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나무생각, 2005.

Morgan, John D. *죽음—그 의미와 대응*. 김재경 역. 서울: 한국노년학회,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0.

Newman, B. M. and P. M. Newman. *현대 발달심리학*. 박아청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5.

3. 외국 서적

Atchley, Robert C. *Social Forces and Aging*. 6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1.

Becker, Arthur H. *Ministry with Older Persons: a Guide for Clergy and Congregation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Vita of
Young Kyu Son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Younng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Mar 15, 1973
Marital Status:	Married to Kyung-A Jin, with two daughters, Heesu, Eunsoo
Home Address:	Samsung Apt 104 -1101, Cheonggul-gil 23, Jung-gu, Seoul
Phone:	Home: 02-2231-1935 Office: 02-2280-0102
Denomination:	Korean Presbyterian Church(Tonghap)
Ordained:	April 12, 2004

Education:

B. A.: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6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2
Th. M: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9
D. Min.:	Fuller Theological,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2/2012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Younng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3/2007 to 2/2012 :	Assistant Pastor of Juan Presbyterian Church, Incheon